

2024 에콰도르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대선 실시로 투자환경 변동성 증가	6
나. 한-에과도르 무역협정 'SECA' 가서명, 수해주 주목	10
다. 한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넘어 주류 소비 트렌드로 정착	11
라. 관광 개발 본격화, 향후 원유 수출을 뛰어넘을 전망	12
마. 엘니뇨 대응 정부 정책 관련 사업 기회 다대	14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7
2. 시장 분석	26
가. 시장 특성	26
나. 교역	27
다. 투자	31
라. 프로젝트	33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6
가. 교역	36
나. 투자 진출	39
다. 협력 유망 분야	40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42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3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4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57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59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60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61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24년 에콰도르 경제 ‘현상 유지’

- 글로벌 경제, 높은 인플레이션, 긴축 통화 정책, 러-우 사태 등 요인으로 경제성장 둔화. 전년도에 이은 경제 상승 모멘텀은 유지
- 하지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와 그에 따른 치안 악화, 원유 생산 감소, 엘니뇨 피해 등 경제에 타격을 주는 요소가 부각되며 2024년 에콰도르 경제는 ‘현상 유지’ 전망
 - * 에콰도르 중앙은행, 2024년 성장률 0.8%로 전망, 2023년 성장률 1.5%로 마감 예상
- 국내 차량 판매 최대치 돌파 등 견고한 내수시장, FTA 확대와 미국 달러 사용으로 인한 물가 안정 등 긍정적인 요인 여전하나 상승을 이어가기는 힘든 상황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백만 명	16.7	17.0	17.2	17.5	17.7	18.0	18.1	18.3
명목GDP	십억 달러	104.3	107.56	108.1	96.7	106.1	115.4	120.2	124.6
1인당 명목GDP	달러	6,216	6,318	6,260	5,520	5,978	6,412	6,627	6,818
실질성장률	%	2.4	1.3	0.1	-7.5	4.2	2.9	1.5	0.8
실업률	%	4.6	3.7	3.8	5.3	4.2	4.0	5.6	5.8
소비자물가상승률	%	0.4	-0.2	0.3	-0.3	0.1	3.2	2.0	2.0
재정수지(GDP대비)	%	-0.1	-1.2	0	2.6	2.5	2.9	-1.0	-1.9
총수출	백만 달러	19,122	21,606	22,329	20,227	26,280	32,655	29,356	-
(對韓 수출)	"	127	116	250	90	207	210	202	-
총수입	"	19,844	23,019	22,393	17,781	25,725	33,048	30,438	-
(對韓 수입)	"	608	781	479	377	761	770	480	-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722	-1,413	-63	2,446	555	-393	-1,081	-
경 상 수 지	억 달러	-15	-1,328	-53	499	1,869	3,342	3,028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	1	1	1	1	1	1	1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2	1.0	1.0	0	0	0	0	0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6.2	13.8	9.7	11.8	6.3	8.3	-	-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IMF, BCE(에콰도르 중앙은행), EIU Viewpoint(2023년 9월 조회 기준)

- ※ '23년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대선 실시로 투자환경 변동성 증가
- ※ 한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넘어 주류 트렌드로 정착
- ※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SECA' 가서명 완료, 수혜 품목에 주목
- ※ 광산 개발 본격화, 향후 원유 수출을 뛰어넘을 전망
- ※ 엘니뇨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관련 사업 기회 발굴

가.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대선 실시로 투자환경 변동성 증가

▣ 현 대통령, 임기 못 채우고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대선 결정

- 글로벌 상황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 및 국제 무역 둔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에콰도르는 정치 및 사회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국내 치안 악화,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국가위험도 증가와 정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최근 에콰도르 경제에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부각
 - 이러한 국제적 상황과 국내 정치 불안은 에콰도르 정부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24년 출범할 새 정부에 상당한 재정 압박으로 작용 예상
 - * 에콰도르의 2023년 하반기는 조기 선거 실시, 정치 및 안보 리스크가 점점 더 강조(Fitch, 2023)
- 에콰도르 기예르모 라소(Gillermo Lasso) 대통령은 2021년 5월 취임하였고, 15년(2007~2021년) 좌파 집권을 종식시킨 우파 정권으로 출범. 국회 총 의석 137석 중 야권이 87석을 차지하는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 속 국정 운영
 - 인센티브, 경제 특별 구역, 민관 협력 투자 등 해외 투자 유치 증진 및 경제 진흥 관련 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입법 무산
- (1차 대통령 탄핵안 발의) 야당은 2022년 6월, 정부의 유가보조금 축소로 촉발된 원주민 시위 기간 중 심각한 정치적 위기 및 국내 혼란을 유발했다는 사유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고, 투표 결과 찬성 80표로 부결
 - *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137명의 2/3인 92명 이상 찬성 필요

- (2차 대통령 탄핵안 발의) 야당은 2023년 3월, 국영 석유유통회사 FLOPEC의 유조선 임차계약에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되었다며 횡령 혐의로 탄핵안 발의. 국회 조사위가 대통령 탄핵 소추의 사유로 제시된 횡령 혐의가 근거(증거) 없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탄핵 절차 계속 진행
- 라소 대통령, 2023년 5월 17일 국회 해산권 행사*. 헌법재판소는 라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행사 인정. 이로써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 및 대선 실시
 - * 국회·정부 동반 해산(Muerte Cruzada) :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포기하면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 국회의원은 즉시 직을 상실하지만 현 대통령과 행정부는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거 관리

▣ 2023년 8월 20일,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1차 투표) 실시

-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 총선/대선 1차 투표 및 결선 투표 일정 발표

〈2023년 에콰도르 조기 총선 및 대선 일정〉

행사	일정
후보 등록	2023.05.28~06.10
선거운동	2023.08.08~08.17
TV 토론	2023.08.13
투표(1차)	2023.08.20 * 총선은 1차에서 바로 결정, 대선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나 최소 40% 이상 득표자가 2위 후보와 10%포인트 이상의 표차가 나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 진행
개표	2023.08.21~08.30
선거운동(결선)	2023.09.24~10.12
TV 토론(결선)	2023.10.01
결선투표	2023.10.15
대통령 당선증 교부	2023.11.30

자료: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2023년 5월)

- 8.20(일) 에콰도르 전국 투표소에서 총선 및 대선 1차투표가 실시됨. 주요 대선 후보였던 우파 성향의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Fernando Villavicencio)가 8.9(수) 수도 키토 북부에 위치한 선거운동 행사장에서 나와 차에 오르던 중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선거운동이 제한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대선 1차투표가 치러짐

- REVOLUCIÓN CIUDADANA당의 Luisa Gonzalez 후보가 33.3%로 1위, ACCIÓN DEMOCRÁTICA NACIONAL당의 Daniel Noboa 후보가 23.6%로 2위를 기록. 40%를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아 10.15(일) 1, 2위 간 결선투표 진행
- 같은 날 치러진 총선으로 국회의원 137명이 선출되었으며, 우파 계열이 69석, 좌파 계열이 61석, 기타 7석 차지함. 선출된 국회의원은 10.15일 결선투표로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 국회 개원과 함께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

▣ 2023년 10월 15일,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결선투표) 실시

- 결선투표 1개월 남겨둔 시점에 우파 Noboa 후보, 지지율 54.3%로 앞서
 - 9.24(일) 여론조사기관 커뮤니칼리자에 따르면 지난 9.22~23일 실시된 각종 대선 결선투표 여론조사에서 ADN당의 사업가 출신 다니엘 노보(Daniel Noboa) 후보가 좌파인 루이사 곤잘레스(Luiza González) 후보를 8.7%포인트 앞서고 있으며 노보아는 54.3%, 곤잘레스는 45.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 다니엘 노보아 후보는 치안과 고용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고, 루이사 곤잘레스 후보는 서민 복지와 부의 재분배를 선거운동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음. 루이사 곤잘레스 후보가 대선 1차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투표에서는 우파 성향 유권자들의 표가 다니엘 노보아 후보로 쏠리면서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음. 10.15일 결선투표에서 범 좌파와 우파 연합 간 진영 대결 전망
-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에콰도르 공식 화폐* 관련 주제와 기업이 및 수입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외화유출세금(ISD)*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에콰도르는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 9.27일 현재 해외 송금 시 3.5% ISD 납부

〈주요 안건별 대선 후보 입장〉

안건	후보(지지율, 성향)	
	Noboa(54.3%, 우)	González(45.6%, 좌)
외화유출세금(ISD)	☐ 임기 중 ISD 철폐	☐ ISD 상향 조정할 것
에콰도르 공식 화폐	☐ 미국 달러 유지	☐ 전자화폐 'Ecuadالر' 및 지역 통화 창설 제안
국내 치안 개선 방안	☐ 사법 시스템 및 경찰, 군대 등 법 집행 기관 강화 ☐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통한 범죄 및 폭력 감소 노력	☐ 안보조정부와 법무부 설립 ☐ 과도한 무력 사용과 합법적 시위에 대한 탄압 방지 조치 ☐ 범죄 예방에 집중

안전	후보(지지율, 성향)	
	Noboa(54.3%, 우)	González(45.6%, 좌)
	☐ 범죄 예방, 재활 교육 강화 ☐ 비폭력을 위한 교육 강화 ☐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심 시설 강화(가로등 확충, 우범지대 정비, 안전한 공원 만들기 등)	☐ 수사 및 기소 역량 향상 ☐ 911 시스템 강화 ☐ 경찰과 군대의 역량 강화 ☐ 도로 안전 개선 ☐ 개인의 무기 소유 금지
교도소 시스템	☐ 교도소 내 환경 개선 ☐ 교도소 내 교육 개선	☐ 교도소 내 교육 개선 ☐ 재활 기관의 국유화
인센티브	☐ 고용 창출 기업에 세금 감면 ☐ 기술, 재생에너지, 관광, 농업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정부 재원 투입	☐ 청년 5만 명에게 1년간 기본 급여의 50%를 지원 ☐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

자료: 언론 보도자료(2023년 9월)

- 에콰도르 대통령 결선투표, 우파 Daniel Noboa 후보 52% 득표하며 당선
 - ACCIÓN DEMOCRÁTICA NACIONAL당의 Daniel Noboa 후보가 52%를 득표하며 당선 확정. REVOLUCIÓN CIUDADANA당의 Luisa Gonzalez 후보는 48%를 득표함. Luisa 후보는 8월 20일 대선 1차투표에서는 3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결선투표에서는 우파 성향 유권자들의 표가 Daniel Noboa 후보에게 몰리면서 패배

▣ 2025년 대통령 선거로 인한 에콰도르 국내 정치 리스크 계속

-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5월까지이며, 실제로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집행이 가능한 기간은 장관 및 주요직 인선이 끝나는 2024년 1월부터 다음 대선과 총선을 위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024년 10월까지 10개월 정도 될 것으로 예상
 - 이후 다시 2025년 총선과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며, 이는 정치적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국내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
- 또, 여당(국가민주행동, ACCIÓN DEMOCRÁTICA NACIONAL)의 의석수가 전체 137석* 중 13석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 의석수로 짧은 임기 동안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 * RC당이 전체 137석 중 37%인 51석, MC당 31석, PSC당 14석, ADN당 13석 등이며 전체 137석을 정치 성향으로 분류하면 우파 계열이 69석, 좌파 계열이 61석, 기타 7석

나.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SECA’ 가서명, 수혜 품목에 주목

▣ 2023년 10월 에콰도르 대표단 방한, SECA 가서명 완료

- 이번 방한에는 그동안 양측이 협상을 진행해오던 한국-에콰도르 무역협정 ‘SECA’에 대한 협상 타결 선언 및 가서명 완료. 향후 양국 간 무역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예상. SECA 수혜 품목*에 대한 긴급 대응 필요
 - 이번에 가서명된 SECA 협정은 2024년 양국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식으로 발효. 자동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 다양한 품목 수혜 예상
 - * (자동차부품) 현재 최대 40%인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단계적 인하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전 철폐. 자동차 및 A/S용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 예상
 - * (의료바이오) SECA로 한국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에콰도르 식약처(ARCSA) 등록 간소화 및 공공 입찰 참여 시 국내 제품과 동일 혜택으로 한국산 수혜 예상
 - * (화장품) 현재 20% 수준인 K-뷰티 제품의 관세 인하 전망. 관련 바이어들은 SECA 및 한류 확대 추세에 힘입어 한국산 화장품 수입 증가폭 가파를 것이라 전망

▣ 에콰도르, 한국 포함 세계 10대 무역 국가와 FTA 체결 추진

- 현 정부는 우선 국정과제로 ‘세계 10대 무역 강국과 FTA 체결’을 선정하고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해당 국가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에 총력
 - 코스타리카·중국과 협상 타결 및 서명, 한국과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 가서명 완료, 멕시코와 협상 마무리 단계, 미국·캐나다와 협의 시작
 - 2023년 기준 유럽연합(EU)·영국·EFTA와는 자유무역협정 기 체결한 상황
- 태평양 동맹(PA) 정회원 가입 최종 단계
 - 세계 8번째 경제블록인 태평양 동맹(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가입을 위해 멕시코와의 최종 협상 진행 중. 2024년 태평양 동맹 정회원 지위 획득 전망

다. 한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넘어 주류 소비 트렌드로 정착

■ 중산층 증대로 소비 성향 고급화, 전자상거래 증가 등 소비 성향 변화

-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
 - 에콰도르 전자상거래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 증가,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 영향으로 분석됨. 특히 코로나19는 생활 및 소비패턴을 크게 변화시켰고, 소비자들이 인터넷 구매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
 - * 에콰도르 전자 상공회의소(CECE)가 발표한 2023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 규모가 이전보다 15배 이상 늘었으며, 쌀, 우유, 통조림 등 식료품 매출 증가
- 코스메틱, 피부관리숍 등 프리미엄 스킨케어 산업 성행
 - 에콰도르 중산층은 가격보다는 품질 위주의 소비 성향을 보이며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서 고급 제품 구매를 늘림. 헬스케어, 애완용품, 코스메틱 산업 등 중상류층을 겨냥한 산업이 성행하고 고급 피부관리숍 늘고 있는 상황
 - * 유로모니터(Euromonitor), 에콰도르 스킨케어 전체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1억 7,000만 달러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성장

■ 한류 전문 온라인 쇼핑몰 정착

- 한국 식품, 코스메틱, 보톡스, 미용의료기기 소비 증가
 - 코로나19 이후 한국에 대한 우호 분위기 강화. K-POP에서 시작된 한류가 영화, 드라마, 음식, 화장품, 미용의료기기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 * 에콰도르 2022년 필러 제품(HS Code: 3304.99) 수입 8.8% 증가, 한국산 153% 증가
- 한국 코스메틱, 리프팅실 등 수입 유통에 관심을 가지는 신규 바이어 증가. 한국 코스메틱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 및 각종 SNS 판매 채널 경쟁적 출현
 - * 2022년 리프팅실(HS Code: 3006.10) 전체 수입액은 30% 감소했으나 한국 제품은 54% 증가
- 한국 식품, 코스메틱 전문 온라인 쇼핑몰 정착
 - 라면, 과자, 음료, 김치, 치킨 등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전문 매장 및 한국 코스메틱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이 경쟁적으로 출현
 -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전국 배달 서비스를 제공
 - * 한국 코스메틱 쇼핑몰 Lavuu CEO는 최근 5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한국 식품, 화장품, 미용기기 등 수입·유통에 관심을 가지는 신규 바이어 증가. 한국 코스메틱 전문 쇼핑몰 및 SNS 판매 채널 증가, 유사 유통 채널 출현
 - 키토, 과야킬 등 대도시 중심으로 한국 식당 증가. 막걸리, 인삼 등 K-푸드 제품 정식 수입 사례 늘고 한류 모방 유통 채널 무무소(Mumuso), 요요소(Yoyoso) 등 출현

▣ 한국 문화, 서비스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

-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및 영화 시청률 에콰도르 내 1위 기록. K-POP에서 시작된 한류가 한국 음식, 식품, 화장품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
 - * 2021년 키토시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날 행사(Expo Korea 2021)에 3,000명 이상 방문
- 키토(Quito) 세종학당 2022년 한국어 수업 등록 학생 수 53% 증가. 2022년 한국 대학교 장학금 신청자(학사 과정) 전년 대비 70% 증가. 바뇨스(Baños) 지역 3개 고등학교에 한국어 수업 개설. 에콰도르 산프란시스코(SFCQ) 대학교 교양과목으로 한국문화 및 한국어 수업 시작
- 한식당 및 한국 식품 전문점 증가. 일회성 체험을 넘어 한국 음식 및 식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고객 증가. 한류 팬들만의 문화에서 일반 소비로 정착
- 한국의 날 행사(Expo Korea 2023)에 한류 팬은 물론 일반 시민 3,000명 이상 방문 예상. 삼성, LG, K-뷰티·푸드 업체 등이 참여하여 한국 상품 및 음식 소개
 - * Expo Korea 2023 : 에콰도르 한국의 날 행사로 주에콰도르 대사관, 코트라 키토 무역관이 공동 주관. 30여 개 관련 기업 참여. 2023년 11월 키토(Quito)에서 개최
- 에콰도르 K-POP 월드 페스티벌 관객석 티켓 2분 만에 매진. 일반인 관심 증가
 - * K-POP 월드 페스티벌 : 주에콰도르 대사관이 개최하는 케이팝 문화 행사로 '22년 7월 개최

라. 광산 개발 본격화, 향후 원유 수출을 뛰어넘을 전망

▣ 에콰도르 광물 개발 본격화, 일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 예상

- 에콰도르는 2019년에 들어서 타 중남미 국가보다 뒤늦게 광산 개발이 본격화된 국가로, 광산 개발 가치 및 잠재력이 높아 광산 개발권에 대한 민간 투자 증가. 에콰도르 정부가 광산 개발 활성화를 천명하고 있어 향후 관련 투자 증가 예상

- 최근 광산 개발 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콘сульта 포플라르(Consulta Popular) 제도 도입. 원주민들의 반대 여론 증가 등 개발 저해 요소도 부각되고 있지만 향후 광산 개발 확대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에콰도르 에너지광업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광업 투자가 1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콰도르에서 82만 5,000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사모라 친치페주에 위치한 두 개의 대규모 광산인 Fruta del Norte와 Mirador에서 목표 생산량 100%를 달성하여 2022년 에콰도르의 광업 제품 수출 27억 7,5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 소규모 광산 채굴에 의한 수출도 크게 증가해 7억 5,1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
- 에콰도르는 구리와 금의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국토의 약 10%만 광산 개발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음. 구리와 금은 주로 중국·미국·스위스로 수출. 에콰도르 에너지광업부는 향후 약 317만 헥타르의 광산 양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 관련해 Anglo American, BHO, Newcrest, So Gold, Dundee, Precious Metals, Aurania, Lumina와 같은 국제 광산 기업이 에콰도르에 진출한 상황
 - 사모라 친치페(Zamora Chinchipe), 모로나 산티아고(Morona Santiago), 아수아이(Azuay), 카르치(Carchi)주 등 전국 주요 광산 채굴 사업권 입찰 예상

■ 국가 핵심 산업으로 광산업 선정, 중장기 개발 계획 발표

- 광산업을 국가 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아 적극적인 개발정책 추진 천명
 - 에콰도르 정부는 광산업 개발, 신규 투자 유치, 지속 가능한 채굴, 불법 노동 착취 근절 계획 등을 발표하며 규제 프레임워크 및 법적 보완 장치 마련
 - ‘2020~2030 광업개발 국가계획’ 추진, 2030년까지 광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 2019년부터 광산 개발이 본격 추진되어 2022년 기준 광물 수출은 원유, 바나나, 새우에 이어 에콰도르 4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

■ 에콰도르 최대 광산 전시회 ‘엑스포 미나스(Expominas)’

- Expominas 전시회는 에콰도르에서 가장 큰 광산 분야 전시회로 광산 개발 업체, 장비 및 관련 부품 업체, 운송 서비스 업체는 물론 관련 공기업과 정부 기관들도 참석

- 2023년에는 키토(Quito)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으며 약 400개 업체가 최신 기술과 관련 제품을 소개. 특히 페루,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 광산 개발 분야 강국에서 온 다국적 기업들도 참여
- 2023년 행사에는 △지속 가능한 채굴 △채굴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한 메커니즘 △채굴 활동의 사회적 기여 △소규모 광산 분야 과제 △금과 구리 개발과 같은 주요 테마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도 함께 열림
- Expominas 관계자는 향후 수요가 증가할 채굴 장비로 첨단 터널 천공기, 특수 드릴, 굴착기, 비상 발전기 및 일반 광산 장비, 광물 운송 분야에서는 굴삭기, 프론트 엔드 로더, 덤프트럭, 폭발물 적재 기계, 대형 스트리퍼, 분쇄기 등을 언급, 노천 채굴의 경우 굴삭기와 같은 제품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품이며 대용량 덤프트럭과 같은 장비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첨언
- 또, 지하 채굴용 원격 제어 차량과 같이 위험한 지역에 접근할 때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솔루션 등이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

마. 엘니뇨 대응 정부 정책 관련 사업 기회 다대

▣ 2023~2024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예상

- 다트머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23년에 예측되는 엘니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최대 3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변화로 인해 엘니뇨의 강도와 빈도가 증폭됨에 따라 21세기에는 이러한 손실이 84조 달러에 달할 수 있음(Callahan & Mankin, 2023)
- 엘니뇨가 사회경제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국가·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매우 다양함. 에콰도르에서 엘니뇨는 폭우, 해변 해일, 강과 바다의 흐름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산사태, 토양 침식, 강바닥과 농경지 퇴적, 수원 오염, 동식물 변화 등이 동반하며 특정 지역은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에콰도르 국립 기상 및 수리 연구소에 따르면 1982년과 1997년 당시 엘니뇨 현상으로 농업, 어업, 산업, 상업 및 관광 부문에 큰 손실이 발생했으며 1982년에는 6억 4,100만 달러(GDP의 3.2%), 1997년에는 28억 6,900만 달러(GDP의 10%)의 손실을 기록

- 에콰도르 대통령실은 2023~2024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손실은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이 중 80억 달러는 민간 부문의 손실이고 나머지 40억 달러는 공공 부문의 손실로 추산함.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농업, 상업, 제조업, 건설업, 관광업이며, 이는 GDP의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

■ 엘니뇨 예방 조치를 위한 자원 투자

- 에콰도르 정부는 2023년 사회 투자 예산과 엘니뇨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 조치에 사용할 5억 달러의 IDB 자금을 확보. 9월 자연재해, 기후변화 및 글로벌 팬데믹에 직면한 국가의 재정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4억 달러를 추가로 승인받았다고 발표
 - 에콰도르 재무부는 기존에 경찰차, 경찰 개인 방호 장비 등 국내 치안 강화를 위해 확보했던 예산도 엘니뇨 예방을 위한 조치에 최우선으로 투입할 예정
- (에콰도르 공공건설교통부, MTOP) 세계은행은 엘니뇨 피해 복구와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1억 5,000만 달러의 대출을 MTOP에 제공할 예정
 - MTOP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예방 조치를 위해 덤프트럭, 로더,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Guayas, Los Rios, El Oro 등 홍수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주에 수로 정비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
 - 이상폭우 및 사이클론 등으로 많은 도로 및 교량이 유실된 상황에서 폭우를 동반한 엘니뇨가 수개월 내 에콰도르에 상륙할 것으로 예견되면서 유실된 도로 및 교량 복구, 기존 도로 및 교량 보강 사업 최우선 추진 예정
- (에콰도르 전력공사, CELEC) 에콰도르가 향후 2~3년간 지역적으로 심각한 가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긴급하게 발전량 확대 추진
 - 20억 달러가 투입되는 총 1,232MW 규모의 9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 주요 수력발전소가 물려 있는 에콰도르 동부지역 내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에콰도르 전력 생산에서 압도적 비중('22년 기준 약 75%)을 차지하고 있는 수력발전의 안정성이 점차 위협
 - CELEC은 수력발전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발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프로젝트 외에도 수년 내 수명이 다하는 기존의 낡고 비효율적인 화력발전소 10여 곳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예정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2023년, 2025년 연속 대통령 선거로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 ※ 세계 경제 둔화 속 에콰도르 경기 하방 압력, 무역 규모 축소
- ※ 광산 개발 본격화, ITT 광구 폐쇄로 원유 생산 감소
- ※ 다양한 국가와 FTA 체결 노력 계속, 'SECA' 기대감 확산

가. 정치 환경

■ 여소야대 상황으로 주요 개혁정책 추진에 한계

- 2023년 국회 해산과 총선/대선 실시로 에콰도르 정치 및 안보 리스크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에콰도르 정부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고, 이러한 상황은 재정 수지의 악화로 이어짐. 2025년에 또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정치 리스크가 경제를 압도할 전망
- 2021년 5월 취임한 기예르모 라소(Gillermo Lasso) 대통령은 국회 총 의석 137석 중 야권이 87석을 차지하는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인센티브, 경제 특별 구역, 민관 협력 투자 등 해외 투자 유치 증진 및 경제 진흥 관련 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번번이 무산됨. 2023년 5월 국회·행정부 동반 해산권 발동, 이로 인해 조기 총선/대선 실시
- 2023년 8월 20일 실시된 총선에서 국회의원 137명이 선출되었고, 대선 1차투표에서 '시민혁명운동' 소속 루이사 곤잘레스 후보가 33%의 득표율로 1위, '국가민주주의행동' 소속 다니엘 노보아 후보가 24%를 득표해 2위를 기록
 - (루이사 곤잘레스 후보) 국회의원 출신으로 여성. 부패 의혹을 받는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2007~2017년 재임)의 최측근 인사로, 곤잘레스 후보가 당선되면 에콰도르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

- (다니엘 노보아 후보) 국회의원 출신 재벌 2세. 바나나 농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벌여 재벌이 된 알바로 노보아의 아들. 대선 초반에는 여론조사에서 2%의 지지율로 후보 8명 가운데 5위였으나,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는 등 강력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깜짝 돌풍을 일으킴

- 2023년 8월 20일 선출된 국회의원의 정당별 구성은 RC당이 전체 137석 중 37%인 51석, MC당이 31석, PSC당 14석, ADN당 13석 등이며 전체 137석을 정치 성향으로 분류하면 우파 계열이 69석, 좌파 계열이 61석, 기타 7석

〈에콰도르 정당 현황〉

정당명	의석수	비고
Revolucion Ciudadana (RC)	51	- 당 대표: Rafael Correa - 제1야당 - 창당 연도: 2020 - 정치 성향: 좌파연합(사회주의) - 코레아 前 대통령 지지파들이 연합하여 결성
Movimiento Construye (MC)	31	- 당 대표: Maria Paula Romo - 창당 연도: 2004 - 정치 성향: 중도우파 - 우파 성향의 반코레아 전선의 선두.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Fernando Villavicencio)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으나 선거 유세 중 암살당함
Partido Social Cristiano (PSC)	14	- 당 대표: Alfredo Serrano - 창당 연도: 1951 - 정치 성향: 중도우파 - 종교적 성향(기독교) - 주요 세력 기반 및 정치적 지지: 과야킬시
Movimiento Acción Democrática Nacional (ADN)	13	- 당 대표: Daniel Noboa - 창당 연도: 2022 - 정치 성향: 우파 - 경제적 자유주의, Daniel Noboa 후보 2023년 대선 결선 진출, 에콰도르 바나나 재벌의 아들
Movimiento Actueamos (MA)	8	- 당 대표: Otto Sonnenholzner - 창당 연도: 2023 - 정치 성향: 중도우파 - 2023년 대선 Movimientos Avanza y Suma 연합
Movimiento de Unidad Plurinacional Pachakutik (Pachakutik)	4	- 당 대표: Marlon Santi - 창당 연도: 1995 - 정치 성향: 좌파(Indigenismo; 원주민 권리)

정당명	의석수	비고
Claro que se puede	3	- 당 대표: Yaku Perez - 창당 연도: 2023 - 정치 성향: 좌파 - los movimientos Unidad Popular, Partido Socialista Ecuatoriano y Democracia Si 등 좌파 군소 연합
Sociedad Patriotica	3	- 당 대표: Luicio Gutierrez - 창당 연도: 2002 - 정치 성향: 우파 - Gutierrez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
무소속 및 군소 정당	10	-
합 계		137

자료: 에콰도르 국회(2023년 10월)

- 2023년 10월 15일 에콰도르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ADN당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후보가 52%를 득표하며 당선됨. 다니엘 당선자는 에콰도르 바나나 재벌로 알려진 노보아 전 국회의원의 아들로, 기업인 출신이며 2021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본격 입문함. 또, 1987년 11월생(35세)으로 세계의 현직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로 기록될 전망

■ 정치적 리스크 증가로 국가위험도 상승 및 국가신인도 하락

-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5월까지이며, 2025년 초에 다시 총선과 대선이 치러질 예정
 - 이는 정치적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국가위험도 상승 및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 국내 경기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나. 경제 환경

■ 세계 경제 둔화 속 에콰도르 무역 규모 축소 전망

- 전 세계적으로 고인플레이션, 미국의 고금리 정책, 러-우 사태로 인해 세계 무역 둔화, 에콰도르는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치안 불안, 엘니뇨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
 - 에콰도르 중앙은행, 2024년 성장률 0.8%로 전망, 2023년 성장률 1.5% 예상

■ 정치적 리스크, 경기에 하방 압력 및 투자 진출 방해 요인으로 작용

- 2022년부터 이어진 대통령 탄핵 정국, 2023년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대선 이은 2025년 총선/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이 에콰도르 투자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
 - 특히 해외 투자 유치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경제 특별 구역, 민관 협력 투자 관련 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는 실정

■ 엘니뇨 현상, 1차산업 생산에 타격, 전력·도로 등 인프라 비용 증가 예상

- 에콰도르 대통령실은 2023~2024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손실이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민간 부문 80억 달러, 공공 부문 40억 달러). 민간 부문에서는 농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 인프라 부문 손실도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살아있는 내수 모멘텀, 신용카드 사용 증가 예상

-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새롭게 부각된 반면, 2023년 자동차 판매 최대치 기록,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 견조한 펀더멘털 유지
- 에콰도르 자동차산업협회(Asociación de Empresas Automotrices del Ecuador, AEADE)에 따르면 2022년 에콰도르 자동차 신차 판매 대수는 총 13만 9,517대를 기록. 이는 2011년 이후 최대치이며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8만 5,818대 판매 이후 2년 연속 증가 추세. 2022년 에콰도르 자동차 시장은 전년 대비 17% 성장하였고, 2023년에도 5%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 2023년 상반기 에콰도르 총 자동차 판매 대수는 69,94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성장
- 에콰도르 신용카드협회(ABC de las tarjetas de credito)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동안 에콰도르인들은 5,100만 건의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1억 382만 달러를 소비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8%의 성장한 수치임. 또한 신규 신용카드 발급자의 55.2%가 25세 미만의 젊은층이며 51.0%가 여성임

■ 인플레이션, 중남미 최저 수준으로 안정

- 국립통계조사국(INEC)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은 2.56%를 기록. 전년 동기 2.07% 대비 다소 상승한 수치이나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안정적인 상황. 같은 기간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콜롬비아 11.4%, 페루 5.6%, 멕시코 4.6%, 브라질 4.1%

다. 산업 환경

■ 원유 생산, 전체 생산량의 11% 차지하는 ITT 광구 폐쇄로 도전에 직면

- 에콰도르는 석유 매장량 기준 중남미 3위 국가
 - 2022년 기준 에콰도르 원유 매장량 약 83억 배럴. 하루 평균 5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나 정제 능력이 부족하여 원유를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입하는 구조. 에콰도르 정부는 2025년까지 100만 배럴로 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신규 유전 개발에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 중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증산 목표 달성에 난항
 - * 에콰도르의 총 정유 능력은 하루 175,000배럴로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부족분은 수입
- 특히 아마존지역 환경보호를 이유로 ITT 광구의 폐쇄를 결정하며 유전의 감소, 침식으로 인한 송유관 누수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해 생산 차질. 정부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문제 해결 추진
- 에콰도르 아마존지역에 위치한 ITT 유전은 2023년 8월 15일 치러진 국민투표를 통해 60%의 동의로 석유 개발을 중지. 이로 인해 에콰도르 정부는 ITT 광구를 통해 얻었던 연간 12억 달러의 수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광업 및 석유 부문 신규 투자가 당분간 주춤하게 될 것으로 전망
 - * ITT(43광구)는 2022년 기준 전체 에콰도르 석유 생산량의 약 11%를 차지
- 정부의 증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 하루 47만 배럴 수준으로 하락
 -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47만 배럴을 기록함. 이는 에콰도르 현 정부 출범 당시 설정했던 목표 대비 50%에 지나지 않는 수치임. 또, 이번 ITT 광구를 폐쇄 결정으로 향후 원유 생산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ITT 광구 폐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올해 말에 출범할 다음 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ITT 광구가 폐쇄되면 에콰도르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40.8만 배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광산업

- 에콰도르 정부, 역점 사업으로 광물 개발 추진, 향후 수출 증가 예상
 - ‘2020~2030 광업개발 국가계획’ 추진, 2030년까지 광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 2019년부터 광산 개발이 본격 추진되어 2022년 기준 광물 수출은 원유, 바나나, 새우에 이어 에콰도르 4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
 - * 광물 수출액 2021년 20억 달러, 2022년 상반기 기준 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
- 러-우 사태 이후 주요 광물 공급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중단되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러시아로부터의 공급 부족으로 국제 가격 상승. 이로 인해 향후 에콰도르 광물 분야 투자 및 수출 규모 증가 예상
- 전문가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광산 부문에 30억 3,600만 달러가 투자되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투자액이 약 89억 5,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관련 주요 증가 품목: 굴착기, 프론트 로더, 덤트럭, 대형 광산용 트럭, 모터 그레이더, 폭발물 적재 중장비, 드릴링 머신, 드래그라인, 크래셔, 지하 채광용 발전기 및 채광 특수 장비

〈2023년 기준 진행 중인 에콰도르 광산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지역	사업자	현황
1	Proyecto Cascabel	Imbabura	Sol Gold	2029년 채굴 예정
2	Proyecto La Plata	Cotopaxi	Atico Mining	2024년 채굴 예정
3	Proyecto Curimpamba	Bolivar	Adventus	2024년 채굴 예정
4	Proyecto Loma Gorda	Azuay	Dundee Metal	2024년 채굴 예정
5	Proyecto Ruta del Cobre	Azuay	Grupo Mexico	2026년 채굴 예정
6	Proyecto Rio Blanco	Azuay	Junefield	타당성 조사
7	Proyecto Cangrejos	El Oro	Lumina Gold	2028년 채굴 예정
8	Proyecto Warintza	Morona Santiago	Solaris	2028년 채굴 예정
9	San Carlos Panantza	Morona Santiago	Explocobre	타당성 조사
10	Proyecto Mirador	Zamora Chinchipe	Ecucoriente	2019년 7월 채굴 시작
11	Proyecto Fruta del Norte	Zamora Chinchipe	Lundin Gold	2019년 11월 채굴 시작

자료: 에콰도르 에너지 및 비재생 천연자원부(2023년 9월)

■ 에콰도르 자동차 시장 호조, 한국산 친환경 자동차 판매 확대

- 에콰도르 자동차 시장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판매 최대치를 경신할 정망. 2022년 신차 판매 대수는 총 13만 9,517대를 기록, 전년 대비 17% 성장함. 이는 2011년 이후 최대치이며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이후 2년 연속 증가 추세. 2023년에도 상반기 기준 10.6% 성장세를 기록, 전년도 기록 돌파 예상

* 2023년 상반기 에콰도르 총 자동차 판매 대수는 69,94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성장

- 중국산 자동차, 정부 보조금에 힘입은 저가 공세로 점유율 확대. 유럽산 자동차, 에콰도르-EU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으로 점유율 확대. 한국산 정제
 -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2022년 기준 20.5%로 2018년 26.7%에서 점진적 하락 추세. 한-에콰도르 무역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점유율 반등 기대

〈에콰도르 자동차시장 브랜드별 점유율 현황(20위)〉

(단위: 대수, %)

순위	브랜드	2019		2020		2021		2022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1	CHEVROLET	39,387	29.8	17,730	20.7	24,547	20.6	24,607	17.6
2	KIA	22,171	16.8	15,651	18.2	17,980	15.1	20,046	14.4
3	TOYOTA	7,821	5.9	5,248	6.1	7,131	6	10,145	7.3
4	HYUNDAI	9,382	7.1	6,128	7.1	7,861	6.6	8,458	6.1
5	CHERY	3,483	2.6	2,332	2.7	5,585	4.7	7,614	5.5
6	RENAULT	3,366	2.5	3,153	3.7	5,176	4.3	7,380	5.3
7	JAC	4,067	3.1	3,386	3.9	5,259	4.4	6,512	4.7
8	GREAT WALL	7,305	5.5	4,791	5.6	5,344	4.5	5,096	3.7
9	SHINERAY	762	0.6	933	1.1	3,049	2.6	4,391	3.1
10	DFSK	546	0.4	1,098	1.3	2,431	2	3,945	2.8
11	JETOUR	40	0	234	0.3	2,318	1.9	3,816	2.7
12	VOLKSWAGEN	2,712	2.1	2,125	2.5	3,589	3	3,491	2.5
13	HINO	4,210	3.2	2,552	3	2,939	2.5	2,818	2
14	MAZDA	3,026	2.3	1,953	2.3	2,348	2	2,493	1.8
15	DONGFENG	599	0.5	456	0.5	1,681	1.4	2,265	1.6
16	CHANGAN	1,347	1	1,025	1.2	1,304	1.1	2,171	1.6
17	SUZUKI	-	0	-	0	772	0.6	2,064	1.5
18	NISSAN	4,682	3.5	3,092	3.6	3,719	3.1	1,811	1.3
19	FORD	2,688	2	1,699	2	2,110	1.8	1,545	1.1
20	SOUFAST	1,779	1.3	1,291	1.5	1,348	1.1	1,502	1.1

자료: 에콰도르 자동차산업협회(AEAE, 2023년 10월)

- 친환경 자동차 판매 큰 폭으로 증가
 - 2022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전년 대비 59%, 전기차 16% 증가. 한국산 하이브리드, 전기차 점유율 각각 63%, 55% 기록. 유류비 상승으로 친환경차 인기
 - * 2023년 10월 기준 고급휘발유 가격 갤런당 4.30달러, 2021년 대비 163% 상승

〈에콰도르 연도별 친환경차 판매량〉

(단위: 대수,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증감('22/'21) (%)
하이브리드	1,148	4,269	6,800	5,915	59.2
전기차	106	348	405	371	16.4

자료: 에콰도르 자동차산업협회(AEAE, 2023년 10월)

라. 정책·규제 환경

▣ 현 정부, 외환보유고 최대치로 유지하는 정책 계속

- 에콰도르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3년 9월 8일 기준 외환보유고는 68.7억 달러를 기록. 이는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 5월 37.3억 달러 대비 84% 증가한 수치임. 수출을 통해 달러가 들어오거나 외부 자금이 유입되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수입 대금을 해외로 지불하거나 외채를 상환하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구조. 이전 정부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재무부가 필요시 사용하였으나, 현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책 고수

▣ 주요 국가와 FTA 체결 및 경제블록 가입 추진

- 에콰도르는 볼리비아·콜롬비아·페루와 안데안공동체(CAN) 관세 동맹, 칠레와 경제보완협정, EU와 통상협정, EFTA와 무관세협정, 영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한국·중국과 FTA 및 태평양 동맹(PA) 가입 적극 추진 중
- 한국-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2023년 10월 에콰도르 대표단 방한 및 협정 가서명, 2024년 양국 국회 통과 후 협정 발효 예상
 - * 최근 10년 양국 무역 규모는 7~10억 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 SECA 발효 후 크게 증가 예상

■ 에콰도르 ESG 현황

-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강화, 플라스틱 봉투에 세금 적용
 - 조세 단순화 및 진보법(Ley Orgánica de Simplificación y Progresividad Tributaria)에 의거하여 환경세 부과. 2022년에는 8센트, 2023년에는 10센트로 올릴 예정
 - 농업용·수출용으로 사용되거나 50% 이상 재활용 원료가 투입된 봉투는 세금 면제
-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고체폐기물 재생 목표를 2025년까지 35%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 최근에는 플라스틱 재활용 세금* 도입
 - *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세 : 플라스틱 음료병당 2센트의 환경세를 징수, 수거인에게 지급
- 에콰도르 갈라파고스(Galapagos) 제도 ESG 적용
 - 갈라파고스 발트라(Baltra) 공항에 환경보존,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 세계 최초 생태 공항 타이틀 획득
 - * 미국 그린빌딩 위원회(USGBC)로부터 LEED Gold 인증 획득(지속가능한 건축물 인증)

- ※ (시장 특성) 미 달러 사용국, 광물 분야 개발 기회 다대, 잠재력 높은 온라인 시장
- ※ (수출입) 원유, 농수산물 및 광물 등 1차산업 품목 수출 비중 높음
- ※ (투자 진출) 석유 및 광물 분야 투자 집중, 관련 분야 지속 성장 예상
- ※ (프로젝트) 엘니뇨 대비 도로 및 교량 강화 긴급 사업에서 기회 발굴

가. 시장 특성

▣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 중남미 지역 생산 거점으로 최적

- 미국 달러 사용으로 환 위험 없이 투자금 회수 가능, 안정된 물가
 -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타 중남미 국가들은 통화정책 실패로 환율 급등, 하이퍼인플레이션 경험. 에콰도르는 환율 불안 요소 無
 - * '22년 기준 중남미 국가 중 에콰도르가 3.5%로 가장 낮은 인플레이션 기록 중. 아르헨티나 90%, 칠레 11%, 콜롬비아 9.4%, 멕시코 8.2%, 페루 6.7%, 브라질 6.6%
- 미 달러화 상용으로 환 위험 없고, 안정된 물가로 지역 생산 거점으로 적합
 - 통화 정책 실패로 인한 환율 급등,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의 투자 불안요소 없음
 - *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통화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 경험. 에콰도르는 2000년부터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
- 안데안공동체(CAN) 진출의 거점
 - 에콰도르는 남아메리카 4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경제 협력체인 안데안공동체 진출의 거점 및 남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 가능

▣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인한 관련 사업 기회 다대

- 에콰도르는 석유 매장량 기준 중남미 3위 국가
 - 2022년 기준 에콰도르 원유 매장량 약 83억 배럴, 하루 평균 50만 배럴 생산하고 있으나 정제 능력이 부족하여 원유를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입하는 구조. 정유 플랜트 신설 및 유지보수 관련 우리 석유화학 기업의 투자 기회 다대
 - * 에콰도르의 총 정유 능력은 하루 175,000배럴로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부족분은 수입

- 광산업 개발 잠재성 높아 투자 기회 다대
 - 에콰도르는 금, 구리, 은 등 주요 광물 자원 풍부하나 개발하지 않고 있다가 2019년부터 Fruta del Norte, Mirador 등 대규모 금, 구리 광산 개발 착수
 - 에콰도르 정부, 2025년까지 9억 달러 투자 유치를 통해 추가 광산 개발 추진
 - * 2022년 상반기 광물 수출액 14억 5,700만 달러, 비석유 수출 품목 중 3위 기록

■ 에콰도르 온라인 시장,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에콰도르 전자상거래 시장 큰 폭 성장
 - 에콰도르 전자상거래 회의소(CECE)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매출액 규모가 2021년 32억 2,000만 달러에서 2022년 40억 달러로 약 24% 성장. 에콰도르 인터넷 보급률이 53%로 높은 편이어서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 지속적인 성장 가능
- 에콰도르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에콰도르 전자상거래 시장 400% 이상 성장. 최근에는 중남미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련 스타트업 창업 활발
 - 최근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페루, 우루과이에서 사업을 시작한 온라인 몰 Tiendamia*는 매달 20~30%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점유율 확대 중
 - * 온라인 몰 Tiendamia(www.tiendamia.com) : Amazon, eBay, Walmart 등에 입점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구매, 배송 대행 플랫폼. 중남미 소비자를 대상으로 미국 제품 구매 대행

나. 교역

■ 수출입 동향

- 2023년, 전년 대비 수출 및 수입 규모 감소, 1차산업 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
 - 2022년 에콰도르 총수출 326억 달러 수준. 2023년 상반기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수입은 △8% 기록. 세계적인 경기 둔화 영향으로 무역 규모 축소
 - * 에콰도르 주요 수출 품목: 새우, 원유, 바나나, 수산물, 구리 및 정광 등, 주요 수입 품목: 정제유,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 승용차, 오일-케이크, 의약품, 전화기, 화물차 등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6
수출	22,329,379	20,226,534	26,280,618	32,655,163	15,159,044
증감률	3.35	-9.42	29.93	24.26	-10.12
수입	22,393,116	17,781,493	25,725,274	33,048,922	14,947,006
증감률	-2.72	-20.59	44.67	28.47	-7.94
무역수지	-63,737	2,445,041	555,344	-393,759	212,038

자료: 에콰도르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2023년 9월)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20	2021	2022	순위	국가	2023.6
1	미국	4,739,364	6,355,992	8,980,200	1	미국	3,634,101
2	중국	3,193,705	3,644,911	5,809,702	2	중국	3,143,557
3	파나마	2,431,353	3,969,542	4,575,327	3	파나마	1,868,633
4	칠레	808,822	1,120,473	1,288,911	4	러시아	497,811
5	콜롬비아	789,300	851,880	976,369	5	칠레	471,728
6	스페인	534,862	731,982	945,988	6	스페인	417,204
7	페루	419,137	618,657	936,106	7	네덜란드	399,859
8	러시아	919,618	999,796	928,395	8	페루	394,917
9	네덜란드	565,615	684,869	665,968	9	콜롬비아	391,416
10	이탈리아	512,551	550,107	557,177	10	이탈리아	328,131
총계		20,226,534	26,280,618	32,655,164	총계		15,159,045

자료: 에콰도르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2023년 9월)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20	2021	2022	순위	국가	2023.6
1	미국	3,959,114	5,663,827	8,549,286	1	미국	3,876,522
2	중국	3,947,269	6,040,378	7,280,526	2	중국	3,053,239
3	콜롬비아	1,477,577	1,787,197	2,055,109	3	콜롬비아	1,022,100
4	브라질	662,990	994,904	1,328,187	4	브라질	648,067
5	한국	399,262	917,419	1,216,733	5	페루	574,003
6	페루	599,950	862,228	1,167,960	6	스페인	462,539

순위	국가	2020	2021	2022	순위	국가	2023.6
7	캐나다	331,257	543,140	854,214	7	한국	383,385
8	멕시코	590,759	715,640	823,408	8	멕시코	378,744
9	아르헨티나	311,663	563,064	816,103	9	이탈리아	365,432
10	스페인	477,927	609,544	796,121	10	아르헨티나	346,422
총계		17,781,493	25,725,274	33,048,923	총계		14,947,006

자료: 에콰도르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2023년 9월)

■ 국가별 수출입 동향

• 對한국 수입 규모 증가

- 한국은 에콰도르 주요 수입국 중 2020년까지는 10위를 기록했으나 2022년 5위로 상승함. 2023년은 상반기 기준 7위를 차지하며 수입액 큰 폭으로 하락함

• 주요 경쟁국 동향

- 한국의 에콰도르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정제유, 승용차, 자동차부품, 압연강판, 의료 백신이며, 이 중 정제유, 승용차, 의료 백신 등은 중국, 일본과 중복됨

*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1위 품목인 정제유는 일본의 1위 품목이며, 한국의 2위 품목인 승용차는 중국의 2위, 일본의 3위와 중복됨. 의료 백신은 중국과 경쟁 품목임

〈에콰도르 10대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HS Code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6
1	0306	새우	3,834,782	5,331,052	7,299,472	3,838,879
2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	4,684,794	7,278,164	10,031,304	3,441,640
3	0803	바나나	3,682,436	3,500,321	3,286,350	1,998,727
4	1604	가공·저장 생선	1,171,009	1,262,516	1,366,668	658,389
5	7108	금	378,490	572,623	827,551	654,351
6	2603	구리 및 정광	177,473	490,126	1,287,463	613,850
7	2710	석유와 역청유	563,540	1,331,144	1,544,878	545,737
8	0603	절화와 꽃봉오리	827,142	927,276	950,500	521,530
9	1801	카카오	816,392	819,457	867,838	373,025
10	2616	귀금속 광물	361,060	591,136	651,135	369,424
총계			20,226,534	26,280,618	32,655,164	15,159,045

자료: 에콰도르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2023년 9월)

〈에콰도르 10대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HS Code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6
1	2710	정제유	1,474,766	2,500,267	4,597,462	1,802,209
2	2707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	946,396	1,597,797	2,512,190	1,097,606
3	8703	승용차	546,603	881,756	1,239,426	672,563
4	2304	오일-케이크	476,509	730,465	967,370	541,237
5	3004	의약품	738,806	851,009	901,660	491,847
6	8517	전화기	565,866	617,924	596,979	361,874
7	8704	화물차	311,014	491,591	704,404	343,928
8	2711	석유가스와 탄화가스	359,631	701,521	812,577	301,653
9	1001	밀과 메슬린	325,229	499,021	623,770	290,880
10	2309	동물 사료	242,518	331,595	447,021	220,301
총계			17,781,493	25,725,274	33,048,923	14,947,006

자료: 에콰도르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2023년 9월)

■ 수입 규제 및 비관세장벽

- 對한국 수입 규제 없음
 - 전 세계 대상 발효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수입 쿼터(QR) 없음
- 수입 금지 품목은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가 결정하며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엔진, CFC 발생 냉각 기기, 일부 화학 약품 등 약 130가지
- 전기, 기계류는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인증 필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 기기 등은 에콰도르 식약처(ARCSA)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필요
 - * 에콰도르 식약처(ARCSA) 위생등록은 평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등록 유효기간은 5년

■ 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망

- 주요 원자재 및 중간재 없음
 - 기타 귀금속 매장량 : 금 540만 온스, 은 3,500만 온스, 구리 2,000만 톤
 - * 에콰도르 중앙은행(2023년 1월 기준), 에너지 및 비재생 천연자원부 자료(2023년 기준)

다. 투자

▣ 투자 진출 동향

- 광산 분야에 투자 집중, 지속 성장 예상
 - 에콰도르는 2019년에 들어서 타 중남미 국가보다 뒤늦게 광산 개발이 본격화된 국가로, 광산 개발 가치 및 잠재력이 높아 광산 개발권에 대한 민간 투자 증가
 - 2021년 광산 분야 투자는 약 1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에콰도르 정부가 광산 개발 활성화를 천명하고 있어 향후 관련 투자 증가 예상
- 경제 회복과 함께 제조업 투자 증가
 - 제조업 투자는 약 2억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 중 30%를 차지하며 1위 기록

▣ 주요 경쟁국 동향

- 2022년 기준 총 외국인 직접투자는 8억 2,000만 달러이며, 국적별로는 우루과이, 스페인, 중국, 멕시코 순. 한국, 일본은 100만 달러 수준의 소규모 투자 기록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Net Flow)

산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업, 임업, 수렵 및 수산업	124,498	69,661	97,896	-10,222	7,271	61,024
상업	100,578	89,124	74,753	102,768	55,435	67,401
건설	59,132	88,986	69,231	176,787	93,566	5,507
전기, 가스 및 수도	2,129	8,073	6,705	11,846	802	7,453
광산 및 채석	68,490	808,258	404,337	534,849	108,543	-190,248
제조업	143,902	104,831	110,060	37,320	193,790	67,220
서비스업 지역, 사회, 개인 대상	-3,890	-1,222	-6,788	44,024	-1,628	-8,361
서비스업 기업 대상	82,547	167,855	119,259	202,736	135,259	801,836
운송, 창고, 통신	47,114	52,805	98,864	3,626	45,171	17,210
총계	624,503	1,388,373	974,318	1,103,737	638,211	829,042

주: 2022년 12월 기준

자료: 에콰도르 중앙은행(BCE)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Net Flow)

순위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	우루과이	60,865	90,406	26,790	62,195	1,806	772,047
2	스페인	81,328	169,212	149,250	234,568	-27,827	65,058
3	중국	97,768	61,139	28,271	57,377	75,841	59,997
4	멕시코	6,695	61,682	6,044	-1,795	36,625	37,339
5	네덜란드	42,285	154,040	90,192	-18,242	-19,073	34,262
6	미국	35,055	60,027	74,377	86,793	83,358	33,664
7	스위스	-1,982	15,029	8,604	31,424	80,785	30,328
8	콜롬비아	13,244	17,818	13,402	17,533	22,899	27,286
9	파나마	21,709	4,486	39,213	21,303	19,108	22,863
10	프랑스	-1,664	27,902	4,079	-15,357	25,224	21,324
11	칠레	43,995	37,096	19,844	31,760	38,891	20,196
12	이탈리아	19,280	12,659	14,266	10,377	10,048	18,141
13	스위스	-499	2,610	6,341	870	1,187	17,300
14	영국	11,152	31,061	33,503	105,808	43,101	11,474
15	아르헨티나	9,043	8,654	11,614	12,295	10,188	6,168
총계		629,573	1,389,073	979,050	1,094,686	647,301	829,042

주: 2022년 12월 기준

자료: 에콰도르 중앙은행(BCE)

■ 투자 진출 진입장벽

- 반기업적 노동법 및 다양한 세금
 -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노조 설립 가능. 기업은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종업원에게 배당. 노동자 해고 시 배상금 지불 등 추가 비용 발생
 - 해외 송금 시 외화유출세(ISD) : 기본 송금액 초과 금액의 3.5% 외화유출세 납부
 - * 기본 송금액: 2022년 기준 1,275달러, 에콰도르 정부는 2025년까지 외화유출세 철폐 계획 천명
- 원주민 및 환경 단체의 개발 반대 운동
 - 유전 개발, 광산 개발, 발전소 설립 등 자원 개발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토착민과 환경 단체의 시위로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 발생 가능성 존재

라. 프로젝트

▣ 에콰도르 공공건설교통부, 엘니뇨 대비 도로 및 교량 강화 긴급 사업

- 에콰도르 정부는 겨울철 이상폭우 및 사이클론 등으로 많은 도로 및 교량이 유실된 상황에서 폭우를 동반한 엘니뇨가 수개월 내 상륙할 것으로 예견되면서 유실된 도로 및 교량 복구 및 기존 도로 및 교량 보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엘니뇨 대비, 긴급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
- 발주처 및 규모 : 에콰도르 공공건설교통부(MTOP), 총 101개 사업, 14.9억 달러
 - 총 14.9억 달러 중 약 8억 달러는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CAF(중남미개발은행)) 지원, 나머지 6.9억 달러는 에콰도르 정부(정부 예산(현금) + 국가 보증 어음 발행)에서 마련 예정

〈엘니뇨 대비 긴급 인프라 사업〉

사업명	사업 수 (개)	사업 금액 (억 달러)	예산 확보 및 사업 일정(안)	예산 지원처	계약 방식
유지보수사업 1	2	0.66	예산 기 확보 2023년 하반기	CAF	국제 입찰
2023~2024 긴급복구사업	11	1.5	예산 기 확보 2024년 상반기	세계은행	국제 입찰
물류 인프라 개선	8	2.42	예산 기 확보 2024년 상반기	CAF	국제 입찰
마나비주, 에스메랄다스주 개건	9	0.92	예산 기 확보 2024년 상반기	CAF	국제 입찰
유지보수사업 2	8	2.4	예산 기 확보 2024년 상반기	CAF	국제 입찰
도로, 교통 등 인프라 건설	63	6.88	2024년 예산 마련	자체 자원 (정부 예산 + 국가 보증 어음 발행)	수의 계약
총계	101	14.9	-	-	-

자료: 에콰도르 공공건설교통부(2023년 10월)

■ 디지털 전환 관련 ICT 투자 확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다수

- 에콰도르 정부, 디지털 전환 관련 국가정책 ‘Digital Ecuador’ 추진 중.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들의 5G 통신망, 클라우드, 빅데이터, 전자정부, 관제센터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등 IT/ICT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 지자체의 관제센터 구축 수요 증가. 기존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운영 중인 관제센터와 기능적으로 통합된 시정부의 자체 관제센터 구축 수요 다대
 - 키토, 과야킬 등 주요 지자체, 치안·교통·재난·환경 등 통합 관제센터 도입 추진

■ 수력발전 위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속 발주 예정

- 산티아고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 모로나 산티아고(Morona Santiago)주 수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2,400MW급 수력발전소를 설계·건설하고 10년간 운영하는 민간 발전 사업
 - ① 발주처 : 에콰도르 에너지 및 비재생 천연자원부(MERNR)
 - ② 사업 규모 : 30억 3,050만 달러
 - ③ 추진 방식 : 민간 투자
 - ④ 건설 기간 및 양허 기간 : 6년, 30년
 - ⑤ 입찰 시기: 2024년 8월

■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 민간투자사업 위주로 발주

- 과야스(Guayas)주 남부 교량 고속도로 프로젝트
 - 과야킬시(Guayaquil)와 두란(Duran) 등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총 41.5km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과야스강을 가로지르는 3.44km의 4차선 교량 포함
 - ① 발주처 : 에콰도르 공공건설교통부(MTOP)
 - ② 사업 규모 : 11억 5,000만 달러
 - ③ 추진 방식 : 민관 협력
 - ④ 건설 기간 및 양허 기간 : 4년, 30년
-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정유소 개선 프로젝트
 - 에콰도르 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11만 배럴 규모 에스메랄다스 정유소의 정유 능력 개선 사업으로 기존 시설을 EURO 5 기준으로 개선 후 양허기간 동안 운영

- ① 발주처 : 에콰도르 에너지 및 비재생 천연자원부(MERNR)
- ② 사업 규모 : 22억 달러
- ③ 추진 방식 : 민간 투자
- ④ 건설 기간 및 양허 기간 : 2024년 발표 예정

■ 과야킬시 신공항 건설 및 운영, 신공항 고속도로 사업(EIPP 연계)

- 과야킬(Guayaquil)시 신공항 건설 및 운영 사업
 - 과야킬시 다울라르(Daular) 지역 2,020헥타르 부지에 연 이용객 1,000만 명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계약 기간 동안 운영하는 사업. 연간 이용객 400만 명이 확보된 공항으로 수익성 확보된 사업. 토지 수용 작업 완료된 상황
 - ① 발주처 : 에콰도르 과야킬항공청(Autoridad Aeroportuaria de Guayaquil)
 - ② 사업 규모 : 6~8억 달러
 - ③ 추진 방식 : 민간 투자
 - ④ 건설 기간 : 2026년 착공하여 2031년 운영 개시 목표
- 과야킬(Guayaquil)시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사업
 - 과야킬 시내와 다울라르(Daular)에 건설될 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약 45km 구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계약 기간 동안 운영하는 사업
 - ① 발주처 : 에콰도르 과야킬항공청(Autoridad Aeroportuaria de Guayaquil)
 - ② 사업 규모 : 1~2억 달러
 - ③ 추진 방식 : 민간 투자
 - ④ 건설 기간 : 2030년 이전 완공 목표

가. 교역

▣ 한-에콰도르 교역 동향

- 양국 교역 규모는 7~10억 달러 수준. 2022년 교역 규모는 10억 달러, 2023년에는 30% 정도 감소한 7억 달러 수준이 될 전망. 한국은 매년 3~5억 달러의 흑자 기록

▣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 추진, 관련 수혜 품목에 주목

- SECA는 한-에콰도르 무역협정의 공식 명칭으로 2017~2023년 협상 진행, 2023년 하반기 협상 타결 및 가서명, 2024년 국회 승인 후 발효 예상. 향후 양국 간 무역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예상. 전문가들은 양국 교역 크게 증가 전망
- (자동차부품) 현재 최대 40%인 한국산 자동차 관세, 단계적 인하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전 철폐. 자동차 및 A/S용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 예상
 - * 에콰도르 현대기아차 수입 파트너인 엘후리(EI Juri)그룹 관계자 인터뷰: “한-에콰도르 SECA 체결되면 관세 인하 효과로 에콰도르 자동차 수출이 최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의료바이오) SECA로 한국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에콰도르 식약처(ARCSA) 등록 간소화 및 공공 입찰 참여 시 국내 제품과 동일 혜택으로 한국산 수혜 예상
- (화장품) 현재 20% 수준인 K-뷰티 제품의 관세 인하 전망. 관련 바이어들은 SECA 및 한류 확대 추세에 힘입어 한국산 화장품 수입 증가폭 가파를 것이라 전망

〈한-에콰도르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2016	434,241	-32.3	94,246	-61.6	339,995
2017	608,865	40.2	127,803	35.6	481,062
2018	781,873	28.4	116,893	-8.5	664,980
2019	479,394	-38.7	250,479	114.3	228,915
2020	377,358	-21.3	90,561	-63.8	286,797
2021	761,502	101.8	207,462	129.1	554,040
2022	770,722	1.2	210,303	1.4	560,419
2023(8월)	363,221	-37.7	177,157	-3.9	186,064

주: 2023년 8월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한국의 對에콰도르 품목별 수출 현황
 - 주요 수출품은 정제유, 승용차, 자동차부품, 압연강판 등이며, 2023년 6월 기준 특이사항은 정제유 수출액이 감소하고 에콰도르 국내 조립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압연강판의 수출이 급증. 의료 백신 등 의약품 수출도 증가함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21		2022		2023.6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710	정제유	359,299	206.9	380,223	5.8	96,670	-69.8
2	8703	승용차	65,473	79.1	68,317	4.3	42,824	0.2
3	8708	자동차부품	41,751	58.5	47,795	14.5	29,242	-6.7
4	7208	압연강판	25,704	92.6	4,959	-80.7	24,893	2,090.1
5	8409	엔진부품	15,979	5.5	19,959	24.9	16,569	-6.6
6	3002	의료 백신	28,061	91.6	20,747	-26.1	12,252	54.7
7	8429	건설 장비	16,332	108.9	19,242	17.8	12,229	-11.6
8	7210	압연 철	16,401	148.9	24,498	49.4	12,092	-26.2
9	3902	프로필렌 중합체	16,965	220.9	12,455	-26.6	10,341	35.4
10	3901	에틸렌 중합체	28,558	367.8	17,186	-39.8	9,821	-22.0
총계			761,502	101.8	770,722	1.2	363,221	-37.7

주: HS Code 4단위 기준, 순위는 2023년 8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에콰도르 품목별 수입 현황

- 한국은 에콰도르에서 원유, 새우, 광물, 바나나, 냉동어류 등 1차산업 제품을 주로 수입. 최근에는 원유 수입이 급증하여 2023년 기준 전체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리 및 스크랩, 냉동 생선의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21		2022		2023.8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709	원유	86,289	0.0	112,510	30.4	124,570	10.7
2	0306	새우	74,842	43.0	57,636	-23.0	21,587	-50.1
3	7404	구리 및 스크랩	23,206	65.1	18,954	-18.3	15,270	10.8
4	0803	바나나	13,606	-10.4	11,189	-17.8	8,995	1.8
5	0303	냉동 생선	2,825	17.0	3,676	30.1	2,688	67.7
6	7602	알루미늄 스크랩	1,633	54.9	1,223	-25.1	633	-25.7
7	2619	철강 슬래그	0	0.0	0	0.0	584	0.0
8	0304	생선 필레	274	-76.8	585	113.2	479	55.9
9	2101	커피 추출물	283	-62.1	560	98.3	367	61.1
10	9606	프레스파스너	360	41.1	348	-3.1	298	10.0
총계			207,462	129.1	210,303	1.4	177,157	-3.9

주: HS Code 4단위 기준, 순위는 2023년 8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 기업 수출 성공 사례

- 바이코리아(buyKOREA) 센터의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활용

- 화장품 중소기업 S사, 다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코리아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하여 바이어와 정기적인 화상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2023년 수출 3만 달러 달성
- 바이코리아는 외국의 바이어들이 새로운 한국 제품을 찾기 위해서 활발하게 이용하는 시스템이며 바이어의 인콰이어리 정보가 집중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활용하여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 필요

나. 투자 진출

▣ 투자 진출 현황

- 2023년 기준 삼성전자, LG전자, 한솔EME, 건화 등 4개 사가 진출해 있으며, 향후 한국-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 ‘SECA’ 발효와 함께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사업, 신공항 사업,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에 우리 기업 진출 증가 예상

〈한국의 對에콰도르 연도별 투자 추이〉

(단위: 건, 개, 천 달러, 회)

구분	신고 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 횟수	투자금액
2012	25	4	26,519	21	992
2013	38	2	1,719	33	1,558
2014	52	3	5,443	51	5,027
2015	30	2	11,575	37	4,698
2016	9	1	257	1	25
2017	5	2	6,043	4	6,038
2018	1	0	55	1	55
2019	3	3	146	5	114
2020	0	0	0	2	32
2021	0	0	0	0	0
2022	6	2	1,218	4	1,098
2023	2	0	2	0	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3년 9월 조회)

▣ 한국 기업 투자 진출 성공 사례

- 신재생에너지 P사, “우리 정부 ODA 사업 통해 현지 민간발전사업 진출 추진”
 - 우리 에너지기업 컨소시엄은 갈라파고스 산크리스토팔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산자부 ODA 최종 사업자로 선정됨. P사는 우리 정부 ODA 사업을 수행하면서 2022년 에콰도르 정부가 발주한 민간발전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PQ를 통과함. ODA 사업을 통해 현지 진출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직접투자의 발판을 마련한 성공적인 사례

- 국제금융기구 재원 조달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현지 진출로 위험부담 최소화
 - 국내기업 D사는 2022년 에콰도르 키토(Quito), 과야킬(Guayaquil)시가 IDB,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 자금 조달로 진행하는 상하수도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여 2022년 9월 사전자격심사(PQ) 통과 및 Short List 포함
 - IDB, World Bank 재원 조달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현지 지사 및 영업 라인이 없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다. 협력 유망 분야

■ 한국-에콰도르 경제·에너지 협력 포럼 및 G2G 설명회

-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및 G2G 분야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포럼
 - 주에콰도르대사관, KOTRA 키토 무역관 주관, 에콰도르 측 프로젝트 발주처 및 G2G 관련 부서 참석하여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및 향후 투자 유치 계획 발표
 - * 매년 11월 또는 12월 개최. 2022년 포럼은 11월 에콰도르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 에콰도르 대통령실,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에너지광업부, 공공건설교통부, 국방부 등 주요 발주처 참여

■ 에콰도르 EIPP(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

- EIPP는 우리 정부의 인프라 개발 분야 정책 자문 프로그램으로 실제 프로젝트가 착수되기 직전 단계까지 3년 이상 집중 지원하는 ODA 사업. 에콰도르 민관협력처는 과야킬시청과 함께 우리 정부에 EIPP 사업 공식 신청, 선정됨
 - * 에콰도르 사업 : 과야킬시 신공항 건설 및 운영사업, 과야킬시 스마트시티 사업 개발, 한-에콰도르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 도입 지원
- 에콰도르 EIPP 사업은 '23년 말 착수, 중남미 최초의 EIPP 사업이 될 전망

Chapter



진출전략



- ※ (역량 확대) 강점을 기반으로 진출 유망 산업 선제적 공략
- ※ (강점 활용) 저가 제품과 가격경쟁력을 벗어나 프리미엄 제품으로 중상류층 공략
- ※ (기회 포착) 한류를 심분 활용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 홍보 집중
- ※ (위협 대응) 정부 지원 사업 참가를 통해 진출 기회 포착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 2023년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대선 실시로 투자환경 변동성 증가 • 2025년 또 총선과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며, 이는 정치적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국내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 • 한국-에콰도르 무역협정 'SECA' 가서명 완료, 향후 수혜 품목에 주목 • 에콰도르 정부, '세계 10대 무역 강국과 FTA 체결'을 목표로 무역협정 확대 • '2020~2030 광업개발 국가계획' 추진, 광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선정 • 에콰도르 정부, 엘니뇨 대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 외화유출세(ISD, 현 3.5%):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 당선자 ISD 철폐 공약
E 경제 (Economic)	• 전 세계적으로 고인플레이션, 미국의 고금리 정책, 러-우 사태로 인해 세계 무역 둔화, 에콰도르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치안 불안, 엘니뇨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 • 에콰도르 중앙은행, 2024년 성장률 0.8%로 전망, 2023년 성장률 1.5% 예상 • 에콰도르는 미국 달러 사용국으로서 인플레이션율이 중남미 최저 수준
S 사회문화 (Social)	• 에콰도르인들 신용카드 사용 증가, 특히 25세 미만의 젊은층 및 여성 • 에콰도르 온라인 시장,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한류 콘텐츠 정착에 힘입어 K-뷰티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세 •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강화, 플라스틱 봉투에 세금 적용 • 플라스틱 음료병당 2센트의 환경세를 징수하는 재활용 세금 도입 • 에콰도르 갈라파고스(Galapagos) 제도 ESG 적용
T 기술 (Technological)	• 에콰도르 친환경 자동차 분야 새로운 기회 도래, 판매량 증가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투자 등 적극적인 전략 필요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들의 5G 통신망, 클라우드, 빅데이터, 전자정부, 관제센터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등 IT/ICT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 • 키토, 과야킬 등 주요 지자체, 치안·교통·재난·환경 등 스마트시티 개념 도입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에콰도르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한국을 기술·문화적 '선진국'으로 평가 • 한국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다는 소비자 인식 • 최고 가성비, 빠른 생산 및 납기	약 점(Weakness) • 중국과 선진국 제품 사이 애매한 포지션 • 저가 제품의 공세에 대한 전략적 대응 부족 • 에콰도르 시장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
기 회(Opportunity) •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SECA' • 한류 확산 및 한국 제품 인기 상승 • 엘니뇨 대비 인프라 관련 긴급 사업	위 험(Threat) •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증가 • 중국 및 EU산 자동차 점유율 상승 • 원유·광산 개발 반대 기류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도로·전력 분야 긴급 사업 투자 기회 발굴 • SECA로 다수 품목 수혜, 선제적 대응	기회 발굴을 통한 유망 분야 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 중상류층 겨냥 프리미엄 시장 강화 • 석유 플랜트·광산업 관련 시장 진출	중상류층 공략, 광산업 관련 진출
WO 전략 (기회 포착)	• 한류 활용 디지털 마케팅 강화 •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집중 공략	디지털 한류 강화 전기차 공격 마케팅
WT 전략 (위험 대응)	• 개발협력사업(ODA) 활용한 사업 진출 • 무역협정 체결 수혜 품목 공략	SECA 수혜 품목 선제적 대응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자동차/ 자동차부품	○ 대형 부품 수입업체, 자동차산업협회(AEAE) 회원사 집중 공략 ○ 친환경 자동차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이고 집중된 투자
화장품 등 한류 관련 제품	○ 현지 한류 행사, 전시회 등을 활용한 제품 프로모션 ○ 디지털 마케팅 및 피부과 등 전문가 채널 활용 ○ 기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을 통한 진출
광산 개발 중장비	○ 광산 개발 관련 건설 및 굴착 중장비 홍보에 집중 ○ 에콰도르 최대 광산 전시회 'Expominas' 활용한 프로모션
인프라 프로젝트	○ 에콰도르 정부 '엘니뇨 대응 긴급 사업'에서 기회 발굴, 에콰도르 공공건설교통부(MTOP), 전력공사(CELEC) 사업 공략
강점 기반 분야별 차별화 진출	우리 강점 분야 무역협정 활용한 진출, 에콰도르 정부 정책 기반 진출 기회 포착

3-1. 'SECA' 수혜 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신규 시장 개척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SECA'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수혜
 - * '23년 현재 40%인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단계적 철폐 예상
- 에콰도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 분야 새로운 기회 도래
 - * '22년 한국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차량 점유율 63%, 전기차 점유율 55% 돌파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투자 등 적극적인 전략으로 1위 굳히기 전략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에콰도르 자동차시장 규모는 연간 10만 대 수준. 수입산이 84%, 에콰도르 국내 조립 생산(CKD)이 16%를 차지. 자동차 수입관세는 40%로 높은 편이며, 최근 FTA 확대로 인한 관세 인하. 중국산 수입 증가로 현지 생산은 줄어드는 추세
 - 중국산 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통해 에콰도르 시장에서 높은 가격경쟁력을 유지. 다소 낮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자동차를 선택하는 소비자 증가
 - * 2022년 기준 에콰도르에 약 40개의 중국차 브랜드 진출, 중국산의 에콰도르 시장점유율 1위
- 에콰도르는 노후된 차량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유지보수용 부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는 실정
 - * 자동차기업협회(AEADE)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 연식 15.8년, 11년 이상 연식이 전체의 54% 차지
- 한국산 부품은 에콰도르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각인
 - 중국산 제품은 가격은 저렴하나 고장이 잦고, 일본·유럽 제품은 가격이 비싸지만 한국 제품은 신뢰할 수 있고 가성비 면에서 최고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
 - * 2022년 자동차부품(HS Code: 8708) 전체 수입액 중 한국 제품 12.85% 차지, 3위 기록

〈에콰도르 연도별 자동차 판매량〉

(단위: 대수)

구분	국내산	수입산	총 판매량
2014	61,855	58,205	120,060
2015	43,962	37,347	81,309
2016	26,786	31,761	63,555
2017	38,344	70,203	105,077
2018	36,818	100,797	137,615
2019	25,307	106,901	132,208
2020	13,968	71,850	85,818
2021	19,233	100,083	119,316
2022	20,310	127,053	139,517

자료: 에콰도르 자동차산업협회(AEADE, 2023년 10월)

〈에콰도르 자동차 브랜드별 판매량〉

(단위: 대수, %)

브랜드	2022년 기준 판매	점유율
CHEVROLET	11,200	19.4
KIA	7,849	13.6
TOYOTA	5,130	8.9
RENAULT	3,665	6.3
CHERY	3,659	6.3
HYUNDAI	3,548	6.1
JAC	2,364	4.1
GREAT WALL	2,231	3.9
JETOUR	1,868	3.2
VOLKSWAGEN	1,708	3.0
SHINERAY	1,600	2.8
DFSK	1,492	2.6
MAZDA	1,089	1.9
SUZUKI	932	1.6
CHANGAN	908	1.6
NISSAN	790	1.4
SOUEAST	744	1.3
FORD	735	1.3
DONGFENG	735	1.3
MITSUBISHI	730	1.3
기타	4,771	8.3
총계	57,748	

주: 화물차 제외

자료: 에콰도르 자동차산업협회(AEADE, 2023년 10월)

- 에콰도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 분야 새로운 기회 도래
 - 에콰도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대수는 2021년 약 4,269대였으나 2022년 6,800대로 69% 이상 증가. 에콰도르 정부가 '21.12.1부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던 특별소비세(ICE)를 철폐, 향후 친환경차 판매 지속 증가 예상
- 에콰도르 정부도 에너지효율화법(Ley de eficiencia energetica) 시행령을 통해 “2025년부터 버스, 택시, 통학버스를 비롯한 모든 대중교통은 전기모터로 구동돼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며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
 - 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키토시의 경우 총 6곳(쇼핑몰 4, 일반 아파트 1, 호텔 1), 과야킬시 1곳, 로하주 1곳 등이 전부여서 폭발하는 전기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정용 전기충전기를 사용

〈에콰도르 하이브리드 차량 연도별 판매 추이〉

(단위: 대, %)

순위	브랜드	2019	2020	2021	점유율
1	기아(Kia)	484	420	2,466	57.8
2	Toyota	336	502	1,354	31.7
3	현대(Hyundai)	537	113	252	5.9
4	Mercedes Benz	-	5	66	1.5
5	Audi	23	47	49	1.1
6	BMW	7	40	29	0.7
7	Land Rover	-	-	16	0.4
8	Ram	9	18	15	0.4
9	Volvo	15	3	10	0.2
10	GMC	-	-	5	0.1
전체		1,415	1,148	4,269	100.0

자료: 에콰도르 자동차기업협회(AEAE, 2023년 10월)

〈연도별 에콰도르 전기차 판매량〉

(단위: 대, %)

순위	브랜드	모델명	2018	2019	2020	2021	점유율
1	기아	Soul	33	23	3	193	55.5
2	Dongfeng	Serie Rich	-	-	-	33	9.5
3	Dayang	DY-GD04B	68	23	14	23	6.6
4	Audi	E-Tron	-	-	-	20	5.7

순위	브랜드	모델명	2018	2019	2020	2021	점유율
5	Kaiyun	Pickman	-	-	37	15	4.3
6	Nissan	Leaf	-	-	1	14	4.0
7	Zhidou	D1	-	-	-	12	3.4
8	BYD	E3	-	-	1	6	1.7
9	MG	MGZS	-	-	1	6	1.7
10	Jiayuan	City Spirits	-	-	5	6	1.7
기타			29	57	44	20	5.7
전체			130	103	106	348	100.0

자료: 에콰도르 자동차기업협회(AEAE, 2023년 10월)

- 에콰도르-EU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 한국차 브랜드에 위협
 - 2017년부터 EU산 자동차 수입관세 단계적 인하 중, 2027년 완전 철폐 예정
 - * 배기량 1,500cc 기준 EU산 자동차 관세: '16년 40%에서 '23년 5%, '25년 0%로 인하 예정
- 2023년 10월 11일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협정 발효 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이 개선될 전망. 또,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에콰도르 자동차부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부품 수입업체를 집중 공략. 화상상담 등 비대면 접촉을 통해 부품업체의 수입 담당자와 지속적인 교신 필요
 - 코트라 현지 무역관은 자동차부품 관련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통해 자동차부품 바이어와 화상상담 주선, 한-스페인어 통역 지원 등 관련 지원 제공
 - 디지털 카탈로그 등 제품 정보를 수입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것도 좋은 전략
- 비대면 화상상담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 제품 수요 파악, 바이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수출 기회 발굴, KOTRA의 통역 지원 화상상담 사업 활용 추천
 - 이메일을 통한 일반적인 교신 방식보다 화상을 통한 상담 진행이 더 효과적
 - * KOTRA 키토 무역관, 2022년 자동차부품 관련 화상상담 58건 지원, 성약 15건 총 540만 3,000달러 달성

〈에콰도르 10대 자동차부품류(HS Code 8708) 수입사〉

(단위: 천 달러)

회사명	본사 위치	이메일	수입총액 (2022년)
Empresa Publica de Hidrocarburos del Ecuador	Quito	servicios.tic@eppetroecuador.ec	1,388,090
Gisis S.A	Duran	estefani.vasquez@skretting.com	94,049
Vitapro Ecuador Cia. Ltda	Guayaquil	jnareas@vitapro.com.ec	55,528
Inbalnor S.A	Yaguachi	ifrancolar@vitapro.com.ec	51,410
Aerolane Lineas Aéreas Nacionales del Ecuador S.A	Guayaquil	chyepez@lanecuadorsa.com	47,224
General Motors del Ecuador S.A	Quito	paul.diaz@gm.com	44,568
Aekia S.A	Quito	vtabango@kia.com.ec	40,856
Distrivehic Distribuidora del Vehiculos del Ecuador S.A	Quito	entesdecontrol@corpmaresa.com.ec	39,151
Agripac S.A	Guayaquil	info@agripac.com.ec	38,262
Aquacargill del Ecuador Cia Ltda	Duran	ericka_gruezo@cargill.com	35,924

자료: SICEX(2023년 10월)

- 에콰도르 친환경 차량 판매 급증 및 구조적 성장 초입
 -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판매는 2021년을 기준으로 급증하는 모습. 전기차 판매에서 기아 SOUL이 1위를 기록하고 하이브리드 부문에서도 한국산 점유율이 50% 이상을 넘어선 상황.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 필요
- 에콰도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절실
 - 소비자들은 가정용 저속충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실정. 충전 인프라 부족이 전기차 확대의 최대 걸림돌. 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과 자사 제품 판매 연계 전략 필요
- 에콰도르 전력판매법에 따르면 충전사업 등 전기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영전력 회사와 공동 투자나 전략적 제휴가 필수. 에콰도르 전력부 및 배전회사들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투자자와의 제휴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
 - 전문가들은 대형 주유소 체인과 협력하여 기존 주유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초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모델로 제시

3-2. 한류를 적극 활용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채널 진입 전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류 콘텐츠 정착에 힘입어 K-뷰티에 대한 관심 증대
- 한국 기초화장품 및 피부 미용기기에 수요 증가, 온라인 쇼핑물 성장
-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현지 진출, 한류 행사를 적극 활용한 프로모션 전략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K-뷰티에 대한 관심 및 수요 꾸준한 증가세
 - 한류 콘텐츠의 진출로 인해 중산층, 젊은층을 중심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 에콰도르 내 한국 화장품 런칭을 준비하는 기업들 다수 존재
 - * 대형 유통체인 Supermaxi에 Celkin, 뷰티프렌즈사 마스크팩, 오피 화장품 등 기 진출
- 한국 화장품 수입 원하는 바이어 경쟁적 출현
 - 에콰도르에서 화장품 및 미용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마다 에콰도르 식약청(ARCSA)에 제품 등록 필요. 제품당 평균 1,000달러 및 3개월 이상의 기간 소요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준비하는 바이어 증가 추세
 - * 온라인 전문 한국 화장품 쇼핑몰 Lavuu, 2022년 키토 대형 쇼핑몰 Quicentro Shopping에 오프라인 매장 오픈하며 급성장 중. 향후 과야킬(Guayaquil)시 등에 매장 추가 오픈 예정
- 한국산 코스메틱, 프리미엄 제품으로의 인식 확대
 - 에콰도르 화장품 시장의 주류 제품은 콜롬비아 및 미국 제품이며 프리미엄 제품은 독일(Eucerin) 및 프랑스(Bioderma)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 '19년 에콰도르 화장품 수입 중 콜롬비아 제품 시장 점유율은 49% 이상을 기록
 - 한국 코스메틱 제품은 구매자의 SNS 후기, 추천 등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 * 대형 마트에서 한국 제품은 타 국가 프리미엄 제품들과 같은 섹션에 배치되어 있음
- 한국 기초화장품 및 미용기기 수요 증가, 색조 화장품 수요는 일시적 감소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외출 빈도가 낮아지면서 색조화장품 수요는 감소
 - 피부 관리, 피부 톤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 '23년 6월 화장품(HS Code: 3304.99) 수입액은 약 3,52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 음악, 영화 등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및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 증가
 - 대표적인 OTT 서비스사인 넷플릭스의 에콰도르 상위 10위 인기 콘텐츠에 한국 드라마 또는 영화가 상시 진입. 한국 화장품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및 인플루언서 증가. 미용, 식품, 소비재 품목 등 다양한 분야 한류로 수혜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한국산 기초화장품, 미용기기 유망
 - 미디어에 비친 한국인의 동안 피부, 밝고 깨끗한 피부 이미지로 인해 한국 기초화장품 및 피부관리 미용기기가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주목을 받는 상황
 - 스킨, 로션, 아이크림, 수분크림, 마스크팩, 클렌저 등이 꾸준한 인기를 얻음
- 한류 팬들을 타겟으로 하는 SNS 마케팅 적극 활용
 - 디지털 마케팅이 효과적. 온라인 쇼핑몰 Lavuu의 경우 Facebook, Instagram 등을 통한 제품 소개 및 사용 후기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함
 - * 에콰도르 K-뷰티 전문 온라인 쇼핑몰의 선두 주자인 Lavuu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2024년에는 품목을 더 늘릴 예정
- 증가하고 있는 피부관리숍과 연계한 프로모션
 - 레이저, 초음파를 이용한 피부재생, 기미, 홍조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고급 피부관리숍 증가 추세. 일부 피부관리숍은 K-코스메틱 판매 연계해 매출 증가
 - * 고급 스파 Meraki의 경우 한국산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며, 한국산 화장품도 연계 판매 중
- 한국 관련 행사나 전시회 등을 활용하면 별도의 마케팅 비용 없이 제품 홍보 가능. 매년 개최되는 KOTRA 키토 무역관의 'Expo Korea'와 주에콰도르대사관의 '한국의 날' 행사는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한류 관련 이벤트
 - * 2023년 11월 키토(Quito)시에서 열릴 'Expo Korea'에 한국 화장품업체 15개 사 이상 참여 예정
- 인플루언서 및 전문 채널 활용한 차별화 전략
 - 에콰도르 소비자들의 경우 제품 자체의 효과나 성능보다는 제품 외관의 포장 및 마케팅 방법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제품 패키징을 고급화하는 전략 유망
 -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거나 피부과, 미용숍 등 전문 채널을 통한 홍보도 주요

〈화장품 유통 채널〉

온라인 판매	소매 판매	카탈로그/방문 판매
○ 소규모 수입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제품을 판매	○ 수입업자가 대형 슈퍼, 약국 체인 등 전국적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 유통 채널이 직접 수입하기도 함	○ 카탈로그 판매업체나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자사의 방문판매 채널을 통해 제품을 유통
Lavuu Cosmetics Kshop Cosmetics	SuperMaxi Fybica	YANBAL

화장품 가격대 조회 가능한 홈페이지

- www.lavuucosmetics.com - 한국 기초화장품 전문 온라인 판매점
- www.kshopcosmetics.com/colecciones/skincare/ - 한국 기초화장품 전문 온라인 판매점
- www.dipaso.com.ec - 색조, 기초화장품 등 종합 뷰티 온라인 매장

- 화장품 수입을 위해서는 에콰도르 식약처(ARCSA) 제품 등록이 필수이며, 로션, 크림 등 기초화장품 기준 수입세금은 일반관세 20%, 아동발전기금 0.5%, 부가가치세 12%

〈기초화장품 수입 관세 및 수입 허가〉

HS Code	일반관세 (Ad Valorem)	아동발전기금 (FODINFA)	부가가치세 (I.V.A.)	수입허가
3304.99 (로션, 크림 등)	20%	0.5%	12%	ARCSA 제품 등록

자료: 에콰도르 관세청(SENAE, 2023년 10월)

〈화장품 에콰도르 식약처 등록〉

일반사항	○ 에콰도르 식약처(ARCSA):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위생 허가가 필요한 제품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에콰도르 정부 부처. 제품별 고유번호 발급 - 동일한 제품을 에콰도르 식약처(ARCSA)에 중복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 - 한 번 등록된 제품은 5년간 유효함(5년 후 재등록 필요) - 5년 내이라도 ARCSA 권한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타인에게 양도 가능 - 홈페이지: www.controlsanitario.gob.ec
등록 절차	① 전자 서명 발급 - 싱글원도우(VUE)를 통해 수속을 진행하기 위한 전자 서명 발급 ② ARCSA 서류 접수 - 한국 식약처 등록증, Free Sale 증명 등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본 제출 - HS Code별 표준 RTE 093, RTE 088 등 검사결과서 및 적합성 평가서 - 제품 성분표, 라벨 디자인 및 정보표, 제품 사진 및 Lote 정보 양식 등 ③ 승인 통보 및 수수료 납부 - 승인 통보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보통 2~3개월 소요. 서류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최종 승인까지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음 - 승인 통보받은 후 ARCSA 수수료 US\$904.34 납부 ④ ARCSA 등록번호 발급 - 식약처 등록번호(No de Registro Sanitario) 발급 - 등록번호 발급 이후 제품 수입 가능(통관 시 ARCSA 등록 서류 요구) - 발급된 등록번호를 라벨에 표시하여 제품에 부착 후 판매 가능

자료: 에콰도르 식약처(ARCSA, 2023년 10월)

3-3. 광산 개발 본격화 기회 포착, 관련 중장비 프로모션 전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에콰도르 에너지광업부, 2030년까지 광업 투자 180억 달러 예상
- 에콰도르 정부의 광산 개발 정책으로 건설 중장비 수요 증가
- 에콰도르 최대 광산 전시회 'Expominas' 활용한 프로모션 및 진출 전략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에콰도르 정부의 광산 개발 정책에 따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진행으로 굴착, 채굴, 운반 등 광산업 전 분야에 걸쳐 건설 및 채굴 중장비 수요 증가
- 에콰도르 정부, 역점 사업으로 광물 개발 추진, 향후 수출 증가 예상
 - '2020~2030 광업개발 국가계획' 추진, 2030년까지 광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 2019년부터 광산 개발이 본격 추진되어 2022년 기준 광물 수출은 원유, 바나나, 새우에 이어 에콰도르 4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
 - * 광물 수출액 : 2021년 20억 달러, 2022년 상반기 기준 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
- 에콰도르 에너지광업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광업 투자가 1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콰도르에서 82만 5,000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자모라 친치페주에 위치한 두 개의 대규모 광산인 Fruta del Norte와 Mirador에서 목표 생산량 100%를 달성하여 2022년 에콰도르의 광업 제품 수출 27억 7,5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 소규모 광산 채굴에 의한 수출도 크게 증가해 7억 5,1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
- 에콰도르는 구리와 금의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국토의 약 10%만 광산 개발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음
 - 구리와 금은 주로 중국·미국·스위스로 수출. 에콰도르 에너지광업부는 향후 약 317만 헥타르의 광산 양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관련해 Anglo American, BHO, Newcrest, So Gold, Dundee, Precious Metals, Aurania, Lumina와 같은 국제 광산 기업이 에콰도르에 진출한 상황

- 관계자들은 향후 수요가 증가할 채굴 장비로 첨단 터널 천공기, 특수 드릴, 굴착기, 비상 발전기 및 일반 광산 장비, 광물 운송 분야에서는 굴삭기, 프런트 엔드 로더, 덤프트럭, 폭발물 적재 기계, 대형 스트리퍼, 분쇄기 등을 언급
 - 또, 지하 채굴용 원격 제어 차량과 같이 위험한 지역에 접근할 때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솔루션 등이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을 선도할 것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에콰도르 최대 광산 전시회인 ‘Expominas’는 광산 개발 업체, 장비 및 관련 부품 업체, 운송 서비스 업체는 물론 관련 공기업과 정부 기관들도 참석. Expominas 행사에 부스 참여를 통한 제품 프로모션 및 현지 진출 전략 필요
 - 2023년 행사에는 △지속 가능한 채굴 △채굴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한 메커니즘 △채굴 활동의 사회적 기여 △소규모 광산 분야 과제 △금과 구리 개발과 같은 주요 테마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도 함께 열림
 - * 2023년에는 키토(Quito)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으며 약 400개 업체가 최신 기술과 제품 소개. 특히 페루,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 광산 개발 분야 강국에서 온 다국적 기업들도 참여
- Expominas는 HJ Becdach사가 행사를 주관하며, 수도 키토(Quito)의 시청 컨벤션 센터 (Centro de Convenciones Metropolitano de Quito)에서 매년 7~8월에 개최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부스 위치와 크기를 결정한 다음 비용을 지불하면 예약이 완료됨

〈에콰도르 최대 광산 전시회 Expominas 정보〉

행사명	Feria Expominas 2024
시기	매년 7~8월 중 3일
홈페이지	https://hjbecdachferias.com/expominas/
장소	키토시청 컨벤션 센터 (Centro de Convenciones Metropolitano de Quito)
분야	채굴 기계 및 장비 전시, 관련 서비스 소개
참가 회사 수 (참가 부스 수)	250~300
방문객 수	12,000
주관사	HJ Becdach

자료: Expominas 홈페이지(2023년 10월)

3-4. 엘니뇨 대응을 위한 정부 사업에서 기회를 포착한 현지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23~2024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손실 1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에콰도르 정부, 세계은행과 IDB 자금 활용하여 '엘니뇨 대비 긴급 인프라 사업' 추진
- 에콰도르 공공건설교통부, 전력공사의 엘니뇨 대비 사업을 통한 진출전략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3년에 예측되는 엘니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최대 3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에콰도르에서 엘니뇨는 일반적으로 폭우, 해변 해일, 강과 바다의 흐름을 증가시켜 산사태, 토양 침식, 수원 오염 등을 초래하며, 아마존 지역 등 특정 지역에는 가뭄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 에콰도르 대통령실은 2023~2024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손실은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이 중 80억 달러는 민간 부문의 손실이고 나머지 40억 달러는 공공 부문의 손실로 추산함.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농업, 상업, 제조업, 건설업, 관광업이며, 이는 GDP의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
- 에콰도르 정부는 2023년 사회 투자 예산과 엘니뇨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 조치에 사용할 5억 달러의 IDB 자금을 확보했고, 9월에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및 글로벌 팬데믹에 직면한 국가의 재정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기관으로부터 4억 달러를 추가로 승인받았다고 발표
 - 에콰도르 재무부는 기존에 경찰차, 경찰 개인 방호 장비 등 국내 치안 강화를 위해 확보했던 예산도 엘니뇨 예방을 위한 조치에 최우선으로 투입할 예정
- 에콰도르 정부는 겨울철 이상폭우 및 사이클론 등으로 많은 도로 및 교량이 유실된 상황에서 폭우를 동반한 엘니뇨가 수개월 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견되며 유실된 도로 및 교량 복구 및 기존 도로 및 교량 보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엘니뇨 대비 긴급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에콰도르 공공건설교통부, MTOP) 세계은행은 엘니뇨 피해 복구와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1억 5,000만 달러의 대출을 MTOP에 제공할 예정
 - MTOP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예방 조치를 위해 덤프트럭, 로더,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Guayas, Los Rios, El Oro 등 홍수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주에 수로 정비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
 - 이상폭우 및 사이클론 등으로 많은 도로 및 교량이 유실된 상황에서 폭우를 동반한 엘니뇨가 수개월 내 에콰도르에 상륙할 것으로 예견되면서 유실된 도로 및 교량 복구, 기존 도로 및 교량 보강 사업 최우선 추진 예정
- (에콰도르 전력공사, CELEC) 에콰도르가 향후 2~3년간 지역적으로 심각한 가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긴급하게 발전량 확대 추진
 - 20억 달러가 투입되는 총 1,232MW 규모의 9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 주요 수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에콰도르 동부지역 내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에콰도르 전력 생산에서 압도적 비중(22년 기준 약 75%)을 차지하고 있는 수력발전의 안정성이 점차 위협받고 있으며, CELEC은 수력발전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발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프로젝트 외에도 수년 내 수명이 다하는 기존의 낡고 비효율적인 화력발전소 10여 곳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예정
- 공공건설교통부, 전력공사의 ‘엘니뇨 대비 긴급 인프라 사업’에서 사업 기회 발굴

〈엘니뇨 대비 긴급 인프라 사업〉

사업명	사업 수 (개)	사업금액 (억 달러)	예산 확보 및 사업 일정(안)	예산 지원처	계약 방식
유지보수사업 1	2	0.66	예산 기 확보 2023년 하반기	CAF	국제 입찰
2023~2024 긴급복구사업	11	1.5	예산 기 확보 2024년 상반기	세계은행	국제 입찰
물류 인프라 개선	8	2.42	예산 기 확보 2024년 상반기	CAF	국제 입찰
마나비주, 에스메랄다스주 개건	9	0.92	예산 기 확보 2024년 상반기	CAF	국제 입찰
유지보수사업 2	8	2.4	예산 기 확보 2024년 상반기	CAF	국제 입찰
도로, 교통 등 인프라 건설	63	6.88	2024년 예산 마련	자체 자원 (정부 예산 + 국가 보증 어음 발행)	수의 계약
총계	101	14.9	-	-	-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자동차부품	선정사유	한-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인 SECA로 수혜. 자동차 관세 40%, 부품 관세 5% 인하 등
	시장동향	2022년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경쟁동향	중국산 제품 시장 점유율 증가. 주요 수입국: 중국(40%), 일본(11%), 한국(10%), 미국(8%)
	진출방안	에콰도르 자동차협회(AEADE) 회원사 중 자동차 현지 조립 또는 자동차부품 수입업체 대상 신규 바이어 발굴 확대
품목명 2		
승용차	선정사유	한-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인 SECA로 수혜. 자동차 관세 40%, 부품 관세 5% 인하. 한국산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
	시장동향	한국산 일반 자동차 현지 점유율 20%, 한국산 친환경 자동차 현지 점유율 45%
	경쟁동향	EU와의 FTA 체결로 인한 관세 혜택으로 EU 국가 차량 및 저가의 중국산 차량과 경쟁
	진출방안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적극적 프로모션 행사
품목명 3		
의약품	선정사유	한-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인 SECA로 제품 등록 및 공공 조달 진출에 혜택. 의약품 수요 안정적
	시장동향	2022년 수입액 9억 달러 수준
	경쟁동향	주요 수입국: 콜롬비아(16%), 멕시코(9%), 아르헨티나(7%), 독일(7%), 인도(6%)
	진출방안	에콰도르 의약품 공공 조달 시장 참여 확대
품목명 4		
의료기기	선정사유	한-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인 SECA로 제품 등록 및 공공 조달 진출에 혜택. 의료기기 수요 증가
	시장동향	2022년 수입액 5억 달러 수준
	경쟁동향	주요 수입국: 중국(29%), 미국(21%), 독일(7%), 일본(4%), 멕시코(3%), 한국(3%)
	진출방안	고급 및 고가 의료기기 시장 공략
품목명 5		
화장품	선정사유	한국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요 높음
	시장동향	2022년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경쟁동향	주요 수입국: 콜롬비아(43%), 멕시코(13%), 프랑스(7%), 브라질(6%), 페루(6%), 스페인(5%)
	진출방안	온라인 채널(Facebook, Instagram)을 활용한 판매 및 대형 유통 체인과 연결

품목명 6		
식품·음료	선정사유	한류 소비 증가로 식품, 음료, 주류 수입 증가
	시장동향	2022년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경쟁동향	주요 수입국: 페루(47%), 이탈리아(32%), 중국(6%), 미국(5%), 콜롬비아(4%)
	진출방안	현지 한류 관련 행사 연계 프로모션 전략
품목명 7		
건설중장비	선정사유	광산업 활성화로 관련 수요 증가
	시장동향	2022년 기준 한국 건설중장비 수입 전년 대비 17% 증가
	경쟁동향	주요 수입국: 중국(49%), 브라질(16%), 일본(10%), 한국(9%), 미국(5%)
	진출방안	대형 광산 개발업체에 밀착 영업
품목명 8		
압연강판	선정사유	백색가전 현지 조립 생산 증가로 관련 원자재 수요 증가
	시장동향	2023년 상반기 한국 제품 수입 전년 동기 대비 2,090% 증가
	경쟁동향	주요 수입국: 일본(45%), 중국(25%), 브라질(22%), 한국(5%)
	진출방안	백색가전 업체, 자동차 현지 조립업체 대상 바이어 발굴
품목명 9		
정밀화학원료	선정사유	국내 플라스틱 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폴로프로필렌 등 정밀화학원료 수요 안정적
	시장동향	2022년 기준 對한국 수입 규모 3,900만 달러 수준
	경쟁동향	주요 수입국: 미국(38%), 중국(14%), 브라질(14%), 한국(8%)
	진출방안	에콰도르 플라스틱협회(ASEPLAS) 회원사 통한 신규 바이어 발굴
품목명 10		
치안·방범 용품	선정사유	에콰도르 국내 치안 악화로 관련 치안·방범 관련 제품 수요 증가
	시장동향	2023·2024년 경찰, 지자체, 경비 업체 등의 관련 제품 구매 확대 계획
	경쟁동향	미국, 중국 제품이 관련 시장 주도
	진출방안	경찰, 지자체 입찰에 공급 가능 바이어 발굴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인프라 건설 발전소 설비	선정사유	에콰도르 정부 주도 엘니뇨 대처 관련한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긴급 전력 생산 확충 사업 다수
	시장동향	2023~2024년 관련 사업 집중 추진 예정
	경쟁동향	미국, 중국, 스페인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에너지광업부, 공공건설교통부 통한 사업 정보 입수
품목명 2		
정유 플랜트	선정사유	원유를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유 시설 확장 및 개선 필요
	시장동향	국내 3개 정유 시설 존재. 하루 평균 정유 능력은 에스메랄다스 정유소 110,000배럴, 라 리베르타 45,000배럴, 슈슈핀디 20,000배럴
	경쟁동향	스페인, 미국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에콰도르 에너지광업부 입찰 계획 참조
품목명 3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안, 교통, 전자정부 등)	선정사유	에콰도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등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심 증가
	시장동향	에콰도르 3대 도시인 키토, 과야킬, 쿠엔카시를 중심으로 보안, 교통, 폐기물 처리, 전자정부 등 스마트시티 계획 추진
	경쟁동향	미국, 중국, 대만 및 에콰도르 현지 대기업
	진출방안	KSP, EIPP 사업 등을 활용하여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고 추후 본사업 수주로 연결하는 전략
품목명 4		
핀테크	선정사유	모바일, 빅데이터, SNS 등의 첨단 정보기술 활용도 증가
	시장동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모바일을 통한 결제, 송금 및 마케팅 등 핀테크 수요 및 활용도 증가
	경쟁동향	시간대가 비슷하거나 언어가 같아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이 용이한 미국, 콜롬비아 등 업체 다수
	진출방안	현지 인터넷 플랫폼 공략
품목명 5		
한류 콘텐츠	선정사유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 인기로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증가
	시장동향	한식당 및 한국식품점 증가, 한국 식음료 판매업체 증가, 한국어 강좌 수요 증가, 한국 화장품 및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
	경쟁동향	미국 및 콜롬비아, 스페인 콘텐츠 강세
	진출방안	한국 문화 행사, 한류 전시회 등을 통한 진출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 업 명	시기/장소
1	에콰도르 경제협력사업 (ODA)	• 에콰도르 EIPP(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사업 * 과야킬시 신공항 건설 및 운영 사업, 과야킬시 스마트시티 사업 개발, 한-에콰도르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 도입 지원 등 6개 분야	연중/과야킬, 키토
2	한국 제품 홍보 및 한류 관련	• EXPO KOREA 2023 * 한국 제품 수입 에콰도르 바이어 제품 전시 판매	11월/키토
3	국내 기업 사절단 에콰도르 방문 (온라인 사절단 포함)	• KOTRA 지방지원단 에콰도르 무역사절단 * 지방지원단 지원 국내 기업 현지 방문, 수출상담회	10월/키토
4		• 전력 기자재 온라인 사절단 * 전력 기자재 관련 국내 기업과 현지 바이어 수출상담	9월/키토
5		• 공공 조달 온라인 사절단 * 공공 조달 국내 기업, 현지 조달 벤더 간 수출상담	8월/키토
6		• 에콰도르 방산 온라인 사절단 * 방산물자 조달 관련 국내 기업 현지 방문	9월/키토
7	에콰도르 바이어 참여 전시회, 상담회 (온라인 포함)	•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MEP) * 의료기기 박람회, 에콰도르 관련 바이어 방한	3월/서울
8		• 한국전기산업대전(SIEF) * 전력 기자재 박람회, 에콰도르 관련 바이어 방한	4월/서울
9		•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 뷰티 박람회, 에콰도르 뷰티 관련 바이어 방한	10월/서울
10		• 글로벌 모바일 비전(Global Mobile Vision 2024) * ICT 전문 전시회, 에콰도르 IT 관련 바이어 방한	11월/서울
11		• 한국 방산보안 수출 주간(KODAS) * 방산 전문 전시회, 에콰도르 방산 관련 바이어 방한	9월/서울
12	공공 프로젝트, 투자 유치	•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PP) * 프로젝트 상담회, 프로젝트 발주처, 디벨로퍼 방한	5월/서울
13		• 한-에콰도르 에너지 포럼 * 에콰도르 전력부, 공공건설교통부 등 프로젝트 설명	11월/키토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2023.10.15	
신임 대통령 취임	2023.12.15	
신정부 주요 장관 인선 완료 및 업무 시작	2024.01.02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한-에콰도르 SECA 국회 인준 및 발효	2024년 10월	예상
코스타리카와 FTA 국회 인준 및 발효	2024년 10월	예상
중국과 FTA 국회 인준 및 발효	2024년 10월	예상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xpo Korea 2024	2024년 11월	한류 전시회
Expominas	2024년 8월	광산 및 건설 중장비
Flor Ecuador Agriflor	2024년 10월	화훼
한-에콰도르 에너지 포럼	2024년 11월	에너지 포럼
Ecuador Oil and Power	2024년 11월	석유 개발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양성훈	관장	키토 무역관	+593)2-252-1559	sunghunyang@kotra.or.kr
2	정지웅	과장	키토 무역관	+593)2-223-7111	jeewoongjung@kotra.or.kr

2024 에콰도르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